사진 설명:5월 18일-23일에 미주 한인 예수교장로회 제 39회 총회가 "은혜의 강물이 넘쳐 흐르게 하라"라는 주제로 브라질 이과수 지역에서 열렸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흘러올 은혜의 강물을 이과수 폭포를 보며 다시한번 생각합니다.

아 가 페

2015여름 제382호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퀸즈장로교회

계간 아가페 2015 여름 · 제382호 · 편집인: 김상국 목사 · 발행: 퀸즈장로교회 The Korean American Church of Queens 143-17 Franklin Ave. Flushing,NY 11355(718)886-4040

아 가 페

2015년 여름
제382호

"여성들이여, 관계에서 성공합시다!"
제자훈련의 기쁨
Rise Up and Build Concert
A Happy Memorial Day Picnic
"LIVE FOR JESUS!"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퀸즈장로교회

어머니와 함께 드린 예배

7남매를 둔 가난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먹을 것이 없어서 술지게미에 사카린을 물에 타서 자녀들을 먹였습니다. 소년은 학교에 가면 어린 것이 술을 먹고 다닌다며 야단도 많이 들었습니다. 소년은 아무 말도 못하고 벌을 받았습니다.

소년의 어머니는 가난했지만 자녀들에게 항상 '정직'과 '봉사'를 강조했습니다.
비록 술지게미를 먹였지만 매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함께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너희들은 모두 훌륭한 주의 종들이 될 것이다. 오늘의 시련을 자랑스럽게 이야기 할 날이 곧 올 것이다. 술지게미를 먹던 오늘의 고통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7남매는 어머니로부터 엄격한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자녀들은 장성해서 모두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이숙녀 전도사와 아들 김선도, 김홍도, 김국도 목사의 이야기 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드린 예배는 자녀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어려운 삶이었지만 예배가 삶을 지켜주는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도 예배도 모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열매가 되었습니다.
가정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귀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가정예배가 의무적이거나 습관적이 되지 않도록 합시다.
* 가정예배가 부모의 훈시나 명령을 전달하는 방편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유의합시다.
*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은 알아듣기 쉬운 말로 자녀의 눈높이에 맞춥시다.

아 가 페

2015 여름

목차

1 시편 67편
2 목차
4 설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김성국 목사
6 컬럼 '행복한 가정'
장영춘 목사
8 컬럼
김성국 목사
10 아름다운 고난
편집부
11 소망의 봄에 피어난 부활의 기쁨
편집부
12 부활주일
편집부
13 복 있는 사람들이 벌인 말씀의 향연
편집부
14 부활절
화보
20 여선교회 연합수련회
편집부
24 사순절 성경암송대회
김은경 권사, 정기영집사
황설매집사, 박정민청년
28 성경암송대회
화보
30 꿈 선포
김성민 교사
42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손
천위지 전도사
52 자랑스러운 아빠, 엄마에게
송지훈 학생
56 사랑하는 엄마에게
김미혜 학생
58 우리 아빠의 손
박선해 사모
60 어버이 주일
화보
62 믿음의 달인을 향한 복된 걸음
이무근 장로
64 제자훈련의 기쁨
이승재 집사
67 하나님 말씀이 좋아요!
조윤지 학생
68 KAPCQ Rise Up and
Build Concert Reflection
Denzel Martyr
중등부 RUB 콘서트
안영서, 정예영, 신명재
김규원, 팽소영 학생
78 A Happy Memorial Day Picnic
Charles Hwang
80 Memorial Day 체육대회
HuaLin Zheng
82 전교인 한마음 축제
화보
86 선교를 향한 따뜻한 동행
정해성 집사
92 어린이 부흥집회 "LIVE FOR JESUS!"
편집부
96 하나 됨
김재형 목사
100 두 명의 유권자
오인수 목사
105 가슴 찡한 심방
이양미 전도사
106 "우리아가, 부모자녀"사행시
영아부
108 하나님의 선물 튼튼이
배강원 집사
110 매일 매일 말씀으로...
이승재 집사
114 '3'
박인수 집사
115 주 안에서 자라게 해주세요
최애금 성도
116 믿음의 씨앗이 싹터요
이정혜 교사
118 초등부 교사 1박 2일 수련회
김정선 교사
120 하나님이 쓰시는 가정
배성실 청년
124 딸에게서 받은 사랑의 선물
정혜경 권사
126 담임 목사 추천 도서
레디컬 투게더
128 새가족 졸업 예배
화보
130 단기선교
단기선교팀
132 초등부 수련회를 다녀와서
박혜진 교사
136 여름수련회 중국어 예배부
천위지 전도사
140 한가족 (一家人)
ShouFen Chi
142 온 세상을 향한 사랑과 화평의 수고
편집부
148 지후의 첫 유년부 수련회
조지영 집사
150 Early Elementary Camp
박요한 교사
154 중등부 수련회
송인태 교사
156 가정예배 탐방
박홍배 집사 가정
심인보 집사 가정
160 어머니와 함께 드린 예배

설교

김성국 목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전도서 7:13-14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전도서 7:13-14)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크게 세 가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의 교훈을 말씀을 통해 받고자 합니다.

1. 굽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어떤 부분을 굽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은 우리가 펼 수 없습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창세기 32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굽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뼈는 굽게 하셨으나 그에게 야곱대신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굽게 하시면서 함께 주시는 것도 있으십니다. 20세기의 뛰어난 신학자였던 라인홀드 니버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바꿀 수 없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옵소서
주님, 바꿔야 할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주님, 바꿔야 할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분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굽히시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은 가장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2.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형통케 하시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형통할 때는 마치 자기가 잘해서 형통하게 된 것처럼 착각하거나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일어나야할 일이 일어난 것처럼 무덤덤하게 그 형통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형통할 때 우리가 할 일은 침묵이 아닙니다. 교만이 아닙니다.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삶에 형통이 찾아 왔을 때 결코 잠잠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시편 30:11-12)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때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3. 곤고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곤고케도 하십니다. 최근에 일어난 네팔의 지진이나 한국의 메르스 사태, 미국의 동성결혼허용이라는 대법원 판결 등은 심히 우리를 곤고케 합니다. 이 일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분명히 있으셨습니다. 이사야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사야 45:7)

그렇다면 곤고한 날들에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행하셨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곤고함은 종말이 다가오는 이때에 우리로 깨어 있게 하심이며 또 그 곤고함에는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빚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일은 고사하고 오늘 하루도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의 오늘을 굽게 하실지, 형통케 하실지, 아니면 곤고케 하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거나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굽히시는 것은 받아들이고 형통케 하시는 것은 찬송하며 곤고케 하시는 것에는 되돌아보며 살아야합니다. 매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바라보십시오.
그 일들에 잘 반응한다면 나는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런 승리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장영춘 목사

행복한 가정

인생의 소망의 최대 공약수는 행복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인이 바라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그대는 지금 참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몇 사람이나 '예'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까?

행복, 그것은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진정한 행복은 가정에서부터 찾아온다. 부부 간에 갈등이 없어야 기본적 행복을 누리게 된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며 너그럽게 이해할 때 마음속에서 행복의 샘물이 흐르기 시작할 것이다. 만일 어느 한 편이 자기의 뜻을 관철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한다면 행복은 떠나가고 불행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한다. 부부 간에 서로 희생하지 못하고 나만을 위하라고 하는 이기주의가 싹틀 때 상대방의 마음은 병들기 시작한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누려야 할 가정은 천국이 아니라 비극의 장소로 변하고 마는 것이다.
또한 부모 자식 간에 원만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행복은 찾아온다.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무시하며 불손하게 대한다면 부모들은 마음이 섭섭하여 불행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가정에서 자녀들로부터 부모의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부모의 마음에는 한숨과 원망과 눈물이 가득 차게 되고 행복의 전당이 되어야 할 가정은 지옥처럼 살벌해지고 마는 것이다. 부모에 대한 존경과 사랑과 효심이 메마른 이 시대에 자녀들은 부모님들을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하여 보다 많은 정성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어버이로서의 살 깊은 사랑과 이해와 격려를 자녀들에게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리하여야 자녀들은 늘 부모님께 감사하게 되고 행복을 느낄 것이다. 오늘날 가정에서 참된 위로와 평안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청소년들이 부모의 곁을 떠나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방황하는 것이다.

행복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임을 명심하자. 자녀의 불행이 부모의 교훈을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살려고 가정을 떠나는 데서 비롯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집을 떠나 제 마음대로 살려는 데서 불행은 찾아오는 것이다.
행복은 저 산 너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대 앞에 놓여 있다. 귀하의 가정을 행복의 현장으로 만들 수 없다면 결코 행복의 주인공은 될 수 없을 것이다.

5월, 이 가정의 달에 부부 간 에와 부모 자식 간에 하나님이 주신 계명대로 순종하여 가정 천국을 이루는 진정한 행복의 주인공들이 되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 집 내실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시 128:1-4).

하프타임(Halftime)

김성국 목사

운동경기의 묘미는 하프타임에 있습니다. 전반전에 대한 반성과 후반전에 대한 새로운 기대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전반전에 부진했던 팀이 하프타임 이후에 벌어진 후반전에서 대역전(大逆轉)을 일으키는 경우가 왕왕(往往) 있습니다. 이 여름은 우리 모두에게 2015년이 하프타임이기도 합니다. 지난 상반기를 생각해 보고 다가올 후반기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 하프타임을 보내면 좋을까요?

조용한 시간과 공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늘 분주합니다. 계속 실전(實戰)입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하프타임은 여유가 없는 곳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 멀지 않은 장소라도 나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을 한 번 만들어 보십시오. 운동경기에서 하프타임 시간에 감독의 평가와 지시를 받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감독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잠잠히 들어 보십시오. 다른 소리를 차단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우리의 하프타임이어야 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미식 축구계의 빈스 롬바르디는 가장 승률(勝率)이 높았던 전설적인 감독입니다. 그가 맡고 있는 팀이 슬럼프에 빠질 때 그는 백전노장의 선수들을 모아 놓고 미식 축구공을 들어 올려 모든 선수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이다”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를 한 마디 던졌을 뿐인데 선수들은 다시 힘을 내어 놀라운 결과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후반기에 가장 뛰어난 전략은 기본에 충실한 것입니다. 후반전에 임할 우리 모두의 기본은 말씀 그리고 기도입니다.

도달할 목표를 바라보십시오.

2015년 12월 마지막 날이 어떤 모습이시길 꿈꾸십니까? 그 도달할 목표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신발 끈을 다시 조여 매십시오. 달려야할 방향이 모호하다면 후반전은 맥 빠진 시간이 되고 말 것입니다. “비장의 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종종 운동경기 후반전에 누구도 예측 못했는데 등장하는 새로운 시도를 일컬어 그렇게 말합니다. 목표의 성취를 위해 결정적인 타임에 내밀 비장의 카드를 준비하는 것도 하프타임의 역할입니다.

후반전 시작 휘슬이 곧 울릴 터인데 하프타임을 어설피 보내지 맙시다. 아쉬움의 전반전이 화려한 후반전으로 반전되는 것은 지금 이 여름의 하프타임에 달려 있습니다.

아름다운 고난

하나님의 본체시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 모진 고난과 조롱, 고통과 핍박을 받으시고 마침내 온세상의 모든 죄를 홀로 지시고 저주와 수치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날!
하나님 아버지도 얼굴을 가리시고, 해도 빛을 잃은 처절한 슬픔과 어둠의 날,
그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기리는 고난의 밤 예배가 4월 3일(금) 오후 8시에 채찍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지시고 끝내 십자가에서 외롭게 돌아가신 예수님의 영상이 있은 후에 담임목사님의 예배 선언으로 시작되어, Grace Choir의 은혜로운 부름 찬양 '샘물과 같은 보혈'이 우리들의 마음을 조용히 적셔주고, 정성호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에 이어 Gloria Singers의 특별 찬양 '어린 양을 보라'를 깊은 감동 중에 들은 후 목사님께서 '아름다운 고난'(벧전2:19-25)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아름다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아름다운 고난의 극치를 보여 주셨으며, 예수님이 참으신 이유는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임을 아셨으며, 또한 자신의 고난이 죄인들을 살리는 것인 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의 길을 묵묵히 가되 교회의 남은 고난을 참고 견디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고난과 희생을 묵상하며 아름다운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자는 은혜와 도전의 말씀이었습니다.

윤소영 청년의 은혜로운 Flute 독주 '십자가 밑에서'가 있은 후 온 교우들이 성찬상으로 나와 우리 위해 찢기신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행한 뒤 목사님의 축도로 십자가 밑에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밤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서글프고도 진한 사랑과 보배로운 희생에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소망의 봄에 피어난 부활의 기쁨

예수 부활 하셨네! 사망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옮겨진 소망과 축복의 날!
눈보라와 비바람을 헤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달려온 사십여 일의 긴 순례의 행진이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주님 보좌 앞 금제단에 올라가고 눈부신 백합같이 피어난 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 가셨다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사랑하는 자녀들이 흰 옷으로 단장하고 어둠을 뚫고 주님 전에 나와 새벽 5시 45분에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촛불 예배가 시작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사회로 시작되어 빈 무덤에서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제자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있은 뒤에 아름다운 여성 삼중창(김유경, 소철화, 최지혜) '전하세'를 들으며 촛불 점화가 시작되어 어둔 세상이 주님의 빛으로 밝혀지듯 어두컴컴하던 예배실이 신비한 촛불의 물결로 환해진 가운데
이무근 장로님의 기도와 연합찬양대의 힘찬 승리와 기쁨의 찬양 '할렐루야'를 감격 속에 들은 후에 목사님께서 '내가 주를 보았다'(요20:14-18)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곱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 받은 후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헌신하는 여인으로 변화되어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 밑에도 있었고, 안식 후 첫날 무덤에 갔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첫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함께 갔었던 두 제자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못 만난 주님을 끝까지 무덤을 지키다가 가장 먼저 주님을 만난 마리아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찾고 찾으며 갈망하면 만나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복된 자리가 되도록 하자는 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서 사순절 동안 교회 안팎에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교우들을 시상했고, 목사님의 축도로 부활하신 주님을 환영하는 촛불 예배를 기쁨과 감격 가운데 마쳤습니다.

부활주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일 1,2,3,4부 예배 때에는 정성껏 부활절 헌금을 드렸으며, 오후 4시 예배는 부활절 성례 및 찬양 예배로 드려졌습니다.
김수산 장로님의 기도 후에 담임목사님께서 '저녁 때, 모인 곳'(요:20:19)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하셨지만 아직 주님을 뵙지 못한데다 헛소문으로 두렵기도 하고 민망하여 제자들이 문을 꼭 닫고 모여 있는 곳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고 새 힘을 주신 것 같이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오시면 새롭게 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며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있습니다.

로뎀나무 밑의 엘리야 같이, 베데스다 못가의 38년 된 병자와 같이, 세 번 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한 베드로같이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다시 일어나고 부흥되므로 다시 사신 주님이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다시'의 축복과 은총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자는 복된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후에 성례식이 행해졌는데 학습자 9명, 유아세례자 10명, 입교자 8명, 세례자 8명이었으며, 입교자와 세례자의 감격스러운 첫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4부 찬양대에서 몇달 동안 사랑과 정성으로 준비한 부활절 칸타타 '예수'가 공연 되었는데 예수님의 생애를 그린 감격적인 찬양으로 이스라엘 복장을 한 단원들의 인상적인 안무와 함께 8곡의 찬양(Intro, 십자가로, 호산나, 예수 이름 높이세, 나를 버리리라, 우리 때문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Finale)으로 벅찬 감격과 은혜의 시간을 가졌으며, 목사님의 축도로 부활절 성례 및 찬양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의 힘과 소망과 기쁨이 되시는 부활의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 드리며,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바로 감당하고 땅 끝까지 주님의 생명과 사랑을 전파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 있는 사람들이 벌인 말씀의 향연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깊고 넓고 끝없는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말씀을 선물로 주셔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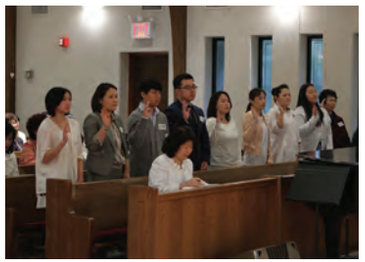
주님이 고난당하신 사순절에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며 매일 받은 요절을 암송하는 성경 암송 대회가 4월 26일(주일) 오후 예배 때 있었습니다. 특별히 금년 사순절에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왕에대한 말씀인 '요한 계시록'을 배우며 큰 은혜를 받았기에 암송 대회도 더욱 은혜가 넘쳤습니다.
이무근 장로님의 기도와 조 성윤 목사님의 '말씀 과 삶'(시 119: 1-8) 이라는 제목의 은혜로운 말씀이 있으신 후에 곧 이어 성경 암송 대회가 시작 되었습니다.

작년에 이어 김 근희, 김 유진 청년의 재치 있고 세련된 사회로 아주 흥미롭게 암송대회가 진행 되었는데, 연세가 높으신 사모님에서부터 고등학생까지 모두 13명이 참가 했으며, 모든 참가자들이 먼저 자기소개와 참가 동기를 돌아가면서 말했는데 다들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모두 세 라운드에 걸쳐 진행 되었는데 첫 번째는 참가자가 한 명씩 화면에 나타난 구절을 암송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2명 혹은 3명으로 조가 되어 화면에 나온 그림이나 중심 단어에 관련된 구절을 암송해야 했으며, 마지막에는 '그리스도'라는 글자 뒤에 숨겨진 두 개의 요절을 다함께(한글 혹은 영어로)암송하는 것이었는데, 그 사이사이에 청중들을 위한 퀴즈도 있었고, 또한 귀여운 유아부 어린이들이 나와서 요절 찬송을 예쁘게 불러주어 참가자들의 긴장도 풀어주고 청중들을 즐겁게 해 주었습니다.

참가자 전원이 담임목사님의 추천 도서를 상품으로 받았으며, 넘치는 은혜와 긴장과 기쁨 가운데 성경 암송 대회가 끝났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복되고 귀한 생명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묵상하는 성경 암송 대회에 더 많은 성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해 보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부활절 새벽 예배

부활절 성례 예배



부활절 칸타타

주제 : 여성들이여, 관계에서 성공합시다!

강사: 김성국 목사, 정정숙 전도사(패밀리터치 원장)

일시: 2015년 4월 6일(월) - 8일(수)

장소: Quality Inn, PA

전남대 영어영문과졸업
텍사스 사우스웨스턴 침례신학 대학원에서
청소년 교육 전공, 부전공 심리학으로 석사 학위, 동대학원 철학박사 취득

저서
'내 아이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정원칙'
'아빠의 선물'

현 "패밀리터치"원장으로 가정사역중

여선교회 연합수련회가 정정숙 전도사의 "여성들이여 관계에서 성공합시다"라는 주제와 김성국 목사의 "현숙한 여인" 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갖고 은혜 중에 진행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심리학의 학문적 접근으로 풀어낸 강의는,

첫째: 성공적인 관계의 법칙

우리는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음을 말하며 이 세 가지 관계의 상호 연관성과 균형이 중요하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자기 자신의 문제일 수 있음을 말하며 자신이 맺고 있는 관계를 "하나님의 렌즈"로 바라보라고 말한다.
나의 시선(생각, 고정관념, 가치관등)으로 바라보는 관계가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건전한 관계의 기초가 된다.

둘째: 관계를 파괴하는 두려움 알기

설문지를 통해 자신의 갈등과 감정, 두려움에 대한 자기 반응을 파악한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의 주원인은 심리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상처에서 오는 두려움에 있음을 말하며 상대방이 그 근본적인 두려움을 건드렸을 때 상처, 요구, 두려움, 나의 반응이 되풀이되는 파괴적인 두려움의 춤을 추게 된다고 한다.
두려움의 춤을 멈추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나 자신의 상처에서 오는 두려움을 파악하고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며 또한 상대방의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그 두려움을 건드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관계를 성공시키는 반쪽의 힘

감정이 행동을 이끌어 가게 된다. 생각과 감정, 행동을 조절하여야 한다.
누군가가 당신의 두려움을 자극할 때 어떻게 반응할지의 선택은 내게 있다.
두려움의 춤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임을 잊지 말고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또한 나 자신뿐임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도록 맡겨야 한다.
용서는 관계를 치유한다. 나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또한 남을 용서하는 것으로 관계를 성공시킬 수 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장벽이 있다면 그것을 허물려 하지 말고 존중하고 상대방이 스스로 그 벽을 허물도록 안전한 분위기를 만들고 기다리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차이를 갈등의 초점으로 보지 말고 존중해 주어야 한다.

상대방을 판단하지 말고 진정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 관계의 발전가능성을 높여준다.

넷째: 성공적인 자기관리(당신의 배터리를 충전하라)

자기 관리는 모든 관계의 핵심이다. 참다운 자기 사랑은 자신의 감정에 귀 기울이고 감정을 파악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라는 이 대계명은 우리가 자신을 사랑할 때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기대치를 줄이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받아들이며, 스트레스를 주는 모든 경험을 하나님을 경배할 기회로 삼아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고요히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이 당신에게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구한다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평안을 맛 볼 것이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듣는 방법은 말 너머에 있는 감정에 귀 기울여 말이나 생각보다는 감정이나 느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상대방을 판단하기보다 마음으로 듣고 상대방의 마음에 귀를 기울일 때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의사소통은 이해하는 것이지,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상대방을 이해하는데 우선순위를 두면 관계가 발전할 것이다.

모두 4번의 강의를 통해 성공적인 관계를 위한 기초와 관계를 파괴하는 두려움, 관계를 성공시키는 방법 등을 소개한 정정숙 전도사는 소아마비와 가난과 씨름했던 유년시절과 중학교 1학년 때 부흥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대학3학년 때 콜링을 받고 유학생부인으로 텍사스로 와서 접시닦이, 베이비시터, 신문배달, 호텔 청소를 하며 신학교학비를 벌어야 했던 시간들, 10년 공부 후 단1학기 신학교 강단에 선 남편에게 찾아온 불치병으로 8년간 투병한 남편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삶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며 고난과 시련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세밀히 돌보시는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밝은 표정으로 웃을 수 있는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지금의 자신이 있기까지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전하였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졌을 때에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역설하였다.

또한 김성국 목사는 "현숙한 여인"이라는 주제로 세 차례에 걸쳐 주신 말씀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현숙한 여인들을 돌아보며 잠언 31장 10 – 31절 말씀 안에서 현숙한 여인의 특징을 세밀히 찾아 볼 수 있었다.

첫째, 상처로 인해 숨겨져 있던 창세기의 인물 레아처럼 신앙으로 상처를 극복하라.

편견과 고정관념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 룻기의 인물 나오미처럼 자신의 죄를 고백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윗에게까지 계보를 이은 양육자가 되라.

분주함 속에 감추어져 있었지만 분주함 가운데 탁월한 영성을 가지고 결국에는 마리아를 앞서간 신앙을 가진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마르다처럼 신실한 신앙인이 되라.

둘째,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현숙한 여인이 되라.

현숙한 여인의 특징은 "살리는 손", "기도하는 손"이다.

잠언31장 말씀을 실천하여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나누어 주며,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을 펴고 내밀며, 어려울 때를 준비하며, 강하게 하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현숙한 여인으로 칭찬을 받을 것이다.

셋째, 현숙한 여인이란 "거짓 자아를 버리고 참 자아를 찾아 당당하게 나가는 여인" 이다.

헛된 것을 좇지 않아야 한다. 칭찬과 인정을 찾는 것은 주님과 상관없는 것을 좇는 것이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좇음으로 현숙한 여인이 되어라.

삼일간의 열정적인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의 설교를 통해 자신을 더욱 돌아보고 아끼며 사랑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재정비하는 시간, 가족과 공동체와의 관계를 리모델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수련회를 마쳤다.

현숙한 여인의 특징은
"살리는 손",
"기도하는 손"이다.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 속으로 빠져만 가는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로 영적 훈련을 시키시려고 사순절 새벽예배를 허락하시고 요한 계시록 강해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왕 되신 주님께 돌려놓으시려고 계획하시는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저는 사순절 새벽예배를 기다리면서 조심스레 한 가지 새로운 도전을 해보기로 했습니다.제자훈련을 통하여 성경 암송이란 맛을 보게 하시고 암송의 묘미를 알게 하시며 암송한 말씀을 나의 마음속에 새기며 생활 속에 적응하도록 노력도 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크신 말씀의 위력을 체험케 하셨기에 훈련을 마치고 무언가 허전해 지는 마음을 사순절 새벽예배를 시작하며 감히 요절을 외워 보기로 한 것입니다. 무언가를 외운다는 것은 나와 거리가 멀고 상상도 못했던 일이지만 제자훈련을 통하여 요령(?)을 알고 느낌을 알았기에 다시 한 번 성경암송의 기쁨을 누려보기로 했습니다.
제자훈련 때보다 사순절 요절 암송이 더 많았음에도 매일 매일 새로운 구절이었음에도… 일주일에 두 구절 외움을 힘들어했던 제자훈련 때의 일들이 웬 말이냐며 더 잘 외워지고 즐거웠습니다. 새벽마다 온 힘을 다하여 열정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풀어 주시는 목사님의 말씀에 힘입어, 그 이해하기 힘들고 무서워 감히 들어가 보지 못한 계시록의 말씀과 요절을 쉽고 편하게 내게 주시는 주님의 사랑표현이라 생각하며 감당한 것 같습니다.
또한 암송대회를 통하여 더욱 더 세세히 이해하며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소화해가며 읽고 또 읽고, 외우고 또 외우고, 시간 시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주저리주저리 말씀을 읊고 있는 나의 모습에 잠시 나도 흐뭇해지는데 우리 주님은 이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지 어린아이가 부모 앞에서 재롱 피우듯 예쁜 짓 해 봅니다. 긴 시간을 할애하여 외운 요절이지만 시간 관계상 몇 구절씩만 외움에 좀 아쉽기는 했지만 나도 해 낸 것이 있다는 게 마냥 뿌듯합니다.
주님!
말씀만 외운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새 예루살렘의 축복을 갈망하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김은경 권사

은혜, 또 은혜

할렐루야! 저는 베드로 선교회 정기영 집사입니다. 먼저 이번 사순절 성경 암송대회를 온 성도님들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여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매년사순절이 끝나고 성경 암송대회를 할 때면 회중석에 앉아서 참가자들의 멋지고 훌륭한 성경 암송 솜씨를 보며 어떻게 그 많은 성경 구절을 잘 외울 수 있을까 하며 부러운 마음을 가지고 지켜보곤 했습니다.
수년전의 일이지만 저의 어머니께서도 칠십세가 넘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성경 암송대회에 참가하시는 것을 보며 놀라워하기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 해 저도 성경 암송대회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렇게 많은 성경구절을 나는 결코 외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에 제자 훈련을 받으며 성경암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경구절이 너무나 잘 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외운 말씀들이 저의 생활 속에서 많이 적용되고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경 암송대회에 참가하게 되었고 성경 구절을 외우며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가자들 모두 청년에서 부터 나이 많으신 권사님, 집사님들에 이르기까지 한 분, 한 분의 모습들을 보며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 분들을 본받아서 더욱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나의 부족함을 느낄 때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정기영 집사

위로와 평안을 주는 성경 말씀

살다 보면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잊고 지나쳐 버리기도 한다. 너무나 당연하여 오히려 잊히는 것이다. 그렇게 잊고 지내던 것들이 지치고 힘든 삶에 작은 희망을 주고 있다는 것을 늦게나마 알게 되었다. 그것이 성경말씀이다. 내가 어려운 일이 있어 힘들고 지치고 외로울 때마다 성경말씀을 외웠던 구절들이 성경을 펼치지 않아도 떠오르는 것이 내게 가장 큰 위로와 평안이었다.
해마다 사순절이 되면 성경암송대회가 있다.
지난해 우연히 성경암송대회에 처음 참가하여 많이 떨리고 당황스러웠지만 많은 분들의 격려와 기도로 무사히 마치게 되었다. 성경암송은 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에 참으로 기쁜 일이다. 성경을 암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늘 함께 동행 하는 삶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올해에는 적극적으로 성경암송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매일 나누어 주는 성경구절을 바쁜 일상에서 암기하기란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틈틈이 암기하던 성경말씀이 내 마음에는 즐거움과 입술에는 찬양의 감사가 넘치게 하였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성경암송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삶이라 생각한다.
말씀을 외운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말씀을 우리 스스로의 마음에 되새길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말씀의 경험을 하는 것은 어떨까?
내년에는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성경암송대회에 참가하여 말씀을 외우면서 기도의 능력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하였으면 한다.
내가 외울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교회와 뉴저지에서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황설매 집사

마음에 깊이 새기는 말씀

안녕하세요, 청년 2부 박정민 자매입니다. 먼저 이렇게 글을 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실 저는 이번 성경암송대회에 전혀 참여할 마음도 준비도 없었던 상황에서 대회를 일주일 앞두고 담당 교역자이신 배인구 전도사님께서 참여해보라고 권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없어서 망설이다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전도사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암송대회를 준비하면서 마음도 조급하고 부담이 되기도 했지만 막상 준비하다보니 이번 계기로 함께 대회에 참여하게 된 지체들과 서로를 위해서 걱정해주고 격려해주면서 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가까워지게 되고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었기에 다시 한 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비록 짧은 시간 안에 완벽하게 한구절 한구절 정확하게 모두 외우지는 못했지만 부족한 중에서도 몇 가지 외운 말씀들이 제 마음 깊이 새겨지게 되었고 살아가면서 그 말씀들이 계속 떠오르고 저를 이끌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 암송 대회에 나가기 전에는 많이 들어본 듯한 성경 구절들이였지만 요한계시록에 관련된 말씀이라서 왠지 모르게 어렵게만 느껴졌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성경 암송 대회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신랑 되신 예수님의 재림을 더욱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부담을 통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되어서 제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할 때면 어린 아이부터 연세가 있으신 어른에 이르기까지 온 교회 식구들 모두가 함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은혜로 가득했던 사순절 새벽예배의 감격과 그때 전해졌던 말씀들을 다시 기억하게 되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된 것이 저에게는 큰 기쁨이기에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박정민 청년

성경 암송대회

"꿈" 선포

김성민 교사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매년 가정의 달을 바로 어린이 주일 헌신 예배로 시작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이 귀한 예배를 위해 많은 어린이들이 시간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했습니다. 이미 3주전부터 예배를 인도할 아이들은 각자 맡은 순서를 연습했고, 유년부와 초등부 찬양대도 그때부터 예배 중 드릴 찬양을 연습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한 '꿈 선포하기'에 참여할 18 명의 어린이들도 열심히 각자 자신이 커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그 일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5월 3일 드린 올해 어린이 헌신 예배는 한마디로 축복이 넘치는 예배였습니다. 예배선언 후 찬송과 기도가 이어졌고, 그 후 본문인 창세기 27 장이 봉독되었습니다. 유초등부 찬양대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는 나의 목자임을 찬양했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며 나는 그를 따를 것을 고백했습니다. 이날 소유영 전도사님은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소홀히 여긴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축복을 사모한 야곱은 후에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 이날 말씀의 제목처럼 '축복 받기 대 작전'을 펼쳐 결국 이삭에게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 번 깨닫게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축복을 사모하는 우리 어린이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들께서 마음껏 축복기도 해 주시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한 명 한 명 붙들고 열심히 마음껏 축복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마치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것 같이요.

특별순서였던 '꿈 선포하기'는 작년에 이어 다시 한 번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얼마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게 되었고 각자의 재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 준 시간이었습니다. 야구선수가 되고 싶은 어린이, 싱어가 되고 싶은 어린이들, CEO 가 되고 싶은 어린이, 건축가가 되고 싶은 어린이 등 퀸장 교회학교 어린이들의 꿈들은 다양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모두 자신들의 꿈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날 이들이 입으로 시인한 것들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에게만 들린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도 올려졌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고백들을 기뻐 받으셨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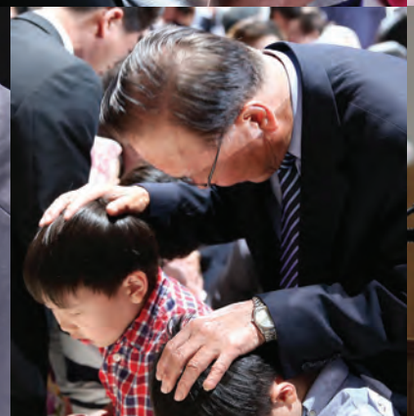
다시 한 번 이렇게 축복이 넘치는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퀸장의 어린이들이 요셉처럼 꿈꾸기를 멈추지 아니하길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어린이 주일

-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가정과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 태중에서부터 구별된 양육을 하는 가정
- 주의 일꾼으로 자라나는 믿음의 아이들
-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넘치는
- 아이들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발견하고 개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배용훈

김 성은



1. 최민규 (1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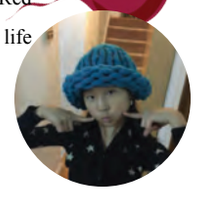
저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의 적들 가운데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 예수님 곁에 섰던 요한과 같이 당당하게 주님을 위해 나설 줄 아는 경찰이 되고 싶습니다. 힘이 없고 나약한 사람들을 지켜주면서 멋지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경찰이 되겠습니다.

I want to be a police officer and be brave like Apostle John, who he bravely stayed with Jesus until He died on the cross. I want to help the people who are weak and poor so I can light the love of Jesus.

2. 최혜리 (3G)

저는 홍해를 가르고 나와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며 찬양한 미리암 같이 주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또 무대에서 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I want to be a singer like Miriam, who praised God for His salvation from the Red Sea. People who hear my praise will want to glorify God. I also want to live my life in a way that brings praises to God.



3. 정지우 (2G)

저는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레고로 보여주는 레고 디자이너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힘을 발휘했던 삼손과 같이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주님 의지하는 레고 디자이너가 되길 원합니다.

I want to be a Lego designer who shows God's wonders and love. Although I am little and weak, I want to rely on God for strength like Samson and glorify Him.

4. 유진 (1G)

저는 아름다운 옷을 만드는 fashion designer가 되어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하고 자줏빛 옷감을 팔아 바울과, 빌립보 교회에서 헌신한 루디아 처럼 저도 주님의 교회에서 열심히 돕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항상 기쁨과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싶습니다.

I want to be a fashion designer who makes people happy with beautiful clothes. I also want to help pastors and churches like Lydia did when she served the Philippian Church and Apostle Paul when he spread God's Word. I want to be joyful and willing in always serving the church first.

5. 조진수 (2G)

저는 용감한 다윗과 같은 유명한 야구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항상 올바르게, 깨끗하게, 양심 있게 운동함으로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존경과 영광을 받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운동할 때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 다윗처럼 저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의지하고 나아가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과 돌리는 선수가 될 것입니다.

I want to be a brave baseball player, like when David fought with Goliath. I want to play sports the right way, in an honest manner, so that God can be glorified, and I want to use that platform to praise God all the time like David.

6. 박채영 (1G)

저는 모세와 같이 인자한 아이 스케이팅 코치가 되고 싶습니다. 선수들은 아름답게 아이스 위에서 무용하지만 그 뒤에서 가르치는 코치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선수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끄는 코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I want to be an ice-skating coach, and a fair leader like Moses. Skaters move gracefully and beautifully across the ice, but I want to be the coach that supports them from behind. I will be a coach who always prays for them and glorifies God.

7. 조현준 (1G)

저는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처럼 창조적인 발명가가 되고 싶습니다. 특별히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을 돌보신 예수님처럼 아픈 사람을 도와주고 고치는 것들을 발명하여 나를 쓰시는 예수님을 전하며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I want to be a creative inventor, like God who created this world. I especially want to invent creations that help people who are physically and emotionally distressed, because Jesus always cares for them. It is in this way that I wish to glorify God.

8. 안지원 (2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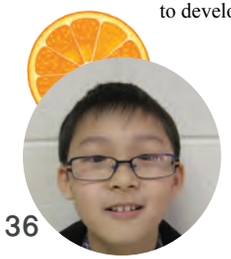
저는 엘리야와 같은 선생님이 되어 엘리사와 같은 제자들을 길러내고 싶습니다.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한 엘리야처럼 아이들에게 예수님만을 의지하라고 가리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감이 갑절이나 많은 제자를 길러낸 것처럼 이 세상에 주님의 참사랑을 영향력 있게 펼칠 수 있는 제자들과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I want to be a teacher like Elijah who discipled Elisha. I want to teach my students that they need to be humble and always rely on God, so they could be spiritual leaders in this world. I want to glorify God with my students.

9. 엄태성 (3G)

저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전도하는 computer engineer 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전도할 때 필요한 많은 물건들을 기술적으로 개발하여 땅 끝까지 우리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I want to be a computer engineer and evangelize the love of Christ, like Paul. I want to develop technology that can spread God's Word to the ends of the earth.



10. 김아인 (3G)

저는 커서 인내하는 따뜻한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씨앗을 아이들에게 심어서 아이들이 자라면 사랑과 용서와 배려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자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사랑하고 싶습니다.

I want to be a patient and warm teacher. I will plant seeds of God's love so that they will grow in love, forgiveness, patience and consideration. I will love them just the way they are, just as Jesus loves me.

11. 이원욱 (1G)

저는 바울과 같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공부하고 찾아내어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는 고고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모든 세상에 예수님의 하신 아름다운 일들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I want to be an archaeologist, who follows Jesus' footsteps, like Apostle Paul. I want to discover His wonderful story and to bring good tidings to the world.

12. 손은비 (6)

저는 커서 격려가 되는 작가가 되어서 제 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제 글을 읽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사용해 성경을 쓰신 것처럼 제 글 쓰는 달란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주시길 원합니다.

I want to be an inspiring author and glorify God through my writing. I want my readers to see God's love through the inspiring stories I write. Just as God used many people to write the Bible, I want God to use my writing skills for His glory.

13. 이예슬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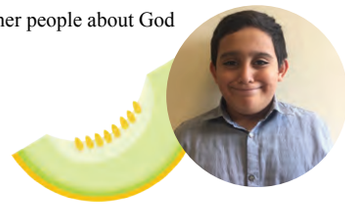
저는 커서 독창적인 패션디자이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옷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옷을 만들어 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필요를 채워주신 것처럼 저도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제가 만든 옷을 통해 사랑과 나눔에 본이 되고 싶습니다.

When I grow up, I want to be a creative fashion designer. I will glorify God by making clothes for those in need. I want to give to those in need, just as God has provided for me. Through the clothes that I make, I want to be an example of love and selflessness.

14. Eros Rodriguez 에로스 로드리게즈 (5)

저는 커서 흥미로운 게임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제가 만드는 게임들 안에 성경에서 나오는 스토리, 그리고 성경인물들의 이름들을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제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I am going to praise God when I am older by working as an exciting video game creator. I am going to put stories about the Bible and use Biblical names in my games. I will praise God by worshiping Him and talking to other people about God who gives you strength.



15 이효리 (4)

저는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전 찬양과 바디워십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습니다. 저는 커서 가수나 댄서가 되어서 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I love to sing and dance. I want to praise God through singing and body worship. And when I grow up, I want to be a singer or a dancer that continually gives glory, praise, and honor to my God. Amen!

16. 정현준 (4)

저는 커서 믿음의 크리스천 건축가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가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시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가서 그들을 위해 교회를 짓고, 집을 짓고, 또 학교를 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재능과 지혜를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데 사용해서 그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 주고 싶습니다.

When I grow up, I would like to become a faithful Christian architect. If God tells me to go to different places and help people in need, I will go wherever that is. I would like to build churches, houses, and schools for them. I will use my talents and wisdom given by God to help poor people so that they get to know God and feel His love.

17. 박은현 (6)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저는 목자 없는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맘에 들어오신 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알게 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아빠가 없는 친구들에게 그분을 꼭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통해 제 삶을 아빠를 잃어버린 고아들을 위해 헌신하고 싶습니다. 제 꿈은 세계적인 지도자와 많은 주요 기업의 CEO가 되어 이들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고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보여 줄 것입니다.

Before I met Jesus, I was a lost sheep without a shepherd. After Jesus came into my heart, I knew who our Heavenly Father was and I still know Him today. I want others, especially the fatherless, to know Him too. Through His love, I want to serve orphans who are lost. My dream is to become a worldwide leader and CEO of many major companies so that I can support them physically, mentally, and spiritually. As an instrument of God, I want to spread the Gospel to orphans and show them God's love and compassion as Christ did for us.

18. 유희린 (6)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하는 싱어가 되고 싶습니다. 아직 미국에 온지 5개월밖에 안됐지만, 퀸즈장로교회에 다니면서 찬양대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보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나중에 커서 가수로 활동을 하게 된다면 찬양 곡을 꼭 대중들 앞에서 부르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싶습니다. 그럼 저를 좋아하시는 팬 분들께서 제가 부른 찬양을 좋아하시고 같이 따라 부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저를 대견스러워 하실 겁니다. 제가 부른 찬양을 듣고, 믿지 않는 사람 중 한 명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I want to be a singer who sings with the beautiful voice that God gave me. I've only been in the U.S. for 5 months, but experienced a lot from watching the choirs in our church praise God. I want to sing a praise song in front of the audience when I work as a singer. Then my fans will learn about praise songs and start singing them and that will please God and make Him proud of me. I wish that at least one person will learn about God's love and comes to Jesus after listening to my praise songs.

GOD'S SCHOOL

최미희 집사

G OD AS THE PRINCIPAL

O NLY TRUSTING IN HIM

D' AY BY DAY RELYING ON GOD'S PROVIDENCE

S O THAT STUDENTS ARE NURTURED SPIRITUALLY & ACADEMICALLY

S URROUNDED BY NATURE AND GOD'S WONDERS

C HRISTIAN-BASED ACADEMY

H EALING CHALLENGING THE STUDENTS TO BE GODLY LEADERS

O FFERING VISION-BASED DREAMS

O PEN TO ALL

L ORD - BE GLORIFIED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손

천위지 전도사

“儿女是耶和华所赐的产业；所怀的胎是祂所给的赏赐。”诗127:3。

今日活在这短暂的世界里，神的话清楚地告诉我们，我们在世的其中一个身份是管家（林前4:1）。而所求于管家的，乃是要他有忠心（林前4:2）。何谓忠心？就是把主人所托付的东西包括人事物，都要按着主人的意思照顾好，安排好，运用好。上帝把儿女交托给我们作父母的，乃是要我们按着神的旨意把神所赐的儿女照顾好、培育好。那神要我们把儿女培育成什麽样子呢？是培育成有很多才干、才艺的人吗？还是培育成很会作生意、赚大钱的人呢？还是培育成又美貌又英俊的人呢？都不是。神把儿女交托给我们，对我们的要求只有一个，“虽然，神有灵的余力能造多人，祂不是单造一人么？为何只造一人呢？乃是祂愿人得虔诚的后裔。”玛2:15。上帝向每个父母所要求的是，培育出虔诚的后裔。什麽是虔诚的后裔？新译本是“寻求神的子孙”，当代译本是“敬虔的后代”。也就是说，上帝要我们作父母的一定要养育出认识神、敬畏神、寻求神、爱慕神的儿女。这是上帝对每一个父母的要求，而将来每个父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상급이로다”(시 127:3)

이 땅에서 짧은 생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신분은 바로 “일꾼”입니다.(고전 4:1)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충성”이 있어야 합니다. “충성”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인이 맡겨준 사람이나 일을 주인의 뜻에 따라 잘 돌보고, 잘 분배하고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우리에게 맡기실 때 원하시는 모습은 부모가 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녀를 잘 보살피고 잘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를 어떤 모습으로 키우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재능과 재간이 가득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비즈니스를 잘해서 큰돈을 버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예쁘고 잘 생긴 사람으로 키우는 것일까요? 모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우리에게 맡기신 이유는 단 한가지 입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말 2:15). 하나님께서 모든 부모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경건한 자손을 양육 해내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손은 어떤 자손일까요?
New Chinese Version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손”이라고 해석 되고, Chinese Living Bible에서는 “경외하는 자손”이라고 해석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된 우리들이 양육해낸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모하

母都要向上帝交这笔账。

如何能够使我们的儿女成为虔诚的后裔？其中一個不可少的，就是要让圣经的价值观成为他们处世的价值观。让我们的儿女拥有圣经真理里的世界观、人生观、金钱观等，使他们在一生中的行事为人不照着这个罪恶世界的风俗和潮流而行，而是照着神美好的旨意而生活。神的话告诉我们说："不要效法这个世界，只要心意更新而变化，叫你们察验何为神的善良、纯全、可喜悦的旨意。"罗12:2。这个世界里充满了很多不合神心意的事情，因为"全世界都卧在那恶者手下"约一5:19。这世界的王（约12:31，14:30，16:11），魔鬼撒旦控制着整个世界的潮流、风气、习俗、价值观等，使人不认识神，每日活在罪中，与神隔绝。因此，这个世界里的制度、风俗是抵挡神的。老约翰告诉我们说："不要爱世界和世界上的事。人若爱世界，爱父的心就不在他里面了。因为凡世界上的事，就像肉体的情欲，眼目的情欲，并今生的骄傲，都不是从父来的，乃是从世界来的。这世界和其上的情欲都要过去，惟独遵行神旨意的，是永远常存。"约一2:15-17。因此，教育我们的孩子不爱这个世界，

고 구하는 사람들 이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이며 미래에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성적표와도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경건한 자손들이 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은 성경 속에 가치관이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의 가치관이 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죄악이 가득한 세상의 풍습과 유행이 아닌 성경진리속의 세계관, 인생관, 금전관을 가지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2). 세상 속에는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한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요일 5:19) "이 세상의 임금"(요 12:31, 14:30, 16:11), 사단 마귀가 이세상의 흐름과 기풍, 습성, 가치관 등을 장악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등진 채 매일 죄악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속에 제도와 풍습 등은 모두 하나님을 저항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5.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6.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17.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요일 2:15-17)

不追求这个世界，不看重短暂的，而定睛在永恒的事物上，去追求、遵行神的旨意成为每位基督徒父母责无旁贷的使命。

如何完成这个使命呢？藉着两种方法，中文有句成语说"言传身教"第一，言传。作为父母的，一定要在日常生活中常常将神的话教育孩子，将真理传达给他们。"我今日所吩咐你的话都要记在心上，也要殷勤教训你的儿女。无论你坐在家里，行在路上，躺下，起来，都要谈论。也要系在手上为记号，戴在额上为经文；又要写在你房屋的门框上，并你的城门上。"申6:6-9上帝要我们在每日的生活里，无论在任何的时候，在任何地方，都要藉着不同的事情、话题、机遇、每个生活的细节，将神的话教育孩子，使他们明白何为对，何为错，何为是，何为非；成为一个懂真理、行真理、敬畏上帝的人。我们不能够把孩子单单交托给学校老师来教育，因为学校里没有教真理，反而教些歪理，误导孩子不认识神或远离神。父母也不能把教育孩子的事单单交托给教会，因为他们一个星期只有几个小时在教会里。孩子们学习、吸收真理最多的，乃是在平时有真理教导的生活

아이들로 하여금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쫓지 않고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원한 것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게 하여 모든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명을 완성 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중국어의 사자성어 중에 "言传身教"(말로도 전수하고 또 행동으로 시범 [모범] 을 보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일은, 언어로 전수하는 것입니다. 부모된 자로서, 일상생활 속에서 꼭 자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곧 진리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 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떠한 상황속이든 어떤 곳에서든 모든 일과 그 화제 속에서 또 어떤 기회 속에서든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교육하여 어떤 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기를 원하시며; 진리를 알고 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자녀의 교육을 모두 선생님께 맡겨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은 일주일에 고작 몇 시간밖에 교실에 있지 않으므로 거의 모든 학습과 습득은 모두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다방면으로 진리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里。我们在生活中可以在诸多的层面来教导真理，比如说：

> 每日孩子放学回家后，在吃晚餐时，问问他们今天在学校学到什么，同学们有什么特别的言语举止。如果有任何不合真理的，马上纠正、教育。如有好的，可以鼓励、效法。有一次，在晚餐时，我小儿子谈起今日在学校，老师教进化论，他自己都知道那是假的，因为平时在家中都有教导进化论与神造论的分别。然后，我们再一次一起讨论进化论为何是假的，圣经是怎么说创造的。

> 一家人也可以花时间坐在一起看一部有价值的影片，然后一起分享里面的内容。市面上有很多很好的基督教影片，如：Facing the Giants, God's Not Dead, Fireproof, The Passion of the Christ, Courageous, Left Behind, Son of God, Heaven is For Real, Letters to God, The Bible, Faith Like Potatoes等等。观赏完影片后，再一起分享里面的真理，这对孩子们的印象会很深刻。

> 在逛街时，碰到一对同性恋者手牵手地走在我们前面，其他人都觉得很正常，没问题，这是自由社会，连学校也这么教。但是回家后，我就会提出来讨论，拿出圣经一起看神对同性恋的咒诅与惩罚。神所看的与人所看的是不一样的。因此，不能效法这个世界，无论是衣着、言行、心态、观念等都不可效法。

> 有时跟孩子聊天的时候，他们谈到同班同学里有男女朋友的关系。我们就会告诉他们这是不对的，为何不对，圣经是怎么说，有什么一系列的后果。

> 在玩玩具或游戏时，开始对其他小孩不耐烦的时候，就会教导他们要彼此相爱，如耶稣爱我们一样。

> 有时在车上，我们会有圣经比赛，看谁答对最多的圣经问题。

> 有时在家中讲圣经故事或分享一些属灵伟人的见证或属灵经历。

> 全家一起背经文，一个星期背一节。

> 每日都会要求孩子读圣经（一天四章，一年之内就可读完整本圣经）。读完后，一起分享，有什么领受、提醒或问题的。

> 每天早上上学前和晚上睡觉前全家都一齐祷告。

生活是多层次多方面的，父母需要求神赐智慧，也把握每一个机会，在生活

예를 들면: 매일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온 후, 식사시간에 아이들과 오늘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같은 반 친구들한테 어떤 특별한 언행이나 행동은 없었는지에 대해 물어보고 어떤 진리에 어긋난 행동이나 언행이 발견되면 바로 시정하고 교육하고 또 좋은 일이 있었으면 칭찬해주고 배워가는 것입니다.

한번은 저녁식사 때 저의 막내아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이 진화론을 가르쳤다고 얘기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이미 진화론은 진리가 아닌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집에서도 진화론은 하나님의 창조론과 상반된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진화론은 왜 틀린 것이고 성경에서 창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대화 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의미 있는 영화 한편을 감상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시중에는 좋은 크리스천 영화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Facing the Giants, God's Not Dead, Fireproof, The Passion of the Christ, Courageous, Left Behind, Son of God, Heaven is For Real, Letters to God, The Bible, Faith Like Potatoes 등. 영화감상 후 다시 한 번 영화내용이나 느낀 것으로 대화 나누면 아이들한테 깊은 인상을 남겨줄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 다닐 때 동성연애커플이 손을 잡고 옆으로 지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특히 자유의 나라라고 여겨지는 미국에서는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며 미국의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 오면 저는 문제를 제기하고 성경책을 꺼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동성애자들에게 저주와 처벌을 내리셨는지 아이들과 함께 찾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보시는 것과 우리 인간들이 서로를 보는 것은 다른 것임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풍습, 옷차림이나 언행이나 마음가짐이나 관점 모두 세상을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들과 대화할 때 아이들은 같은 반 친구들이 이성 친구 관계를 맺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것은 맞지 않는 것이고 왜 틀린 것이고, 성경에는 어떻게 쓰여 있는지 어떤 결과가 있을지를 알려 주곤 합니다.

아이들이 장난감이나 게임을 할 때 다른 친구들과 불쾌한 감정들이 생기는 상황이 생길 때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한다고 가르칩니다.

가끔 차를 타고 가면서 가족 성경구절 맞추기 게임을 하기도 합니다. 누가 제일 많이 맞추는지 겨루는 게임을 합니다.

집에서 성경이야기를 하거나 유명한 사역자의 간증이나 경험에 대하여 나누기도 합니다.

온 가족이 일주일에 한 구절씩 성경구절을 외웁니다.

매일 아이들이 성경구절을 읽도록 요구합니다(하루에 4장 씩 읽으면 1년에 일독할 수 있습니다). 다 읽고 나서 어떤 감회나 깨우침이 있었는지 함께 나눕니다.

매일 아침 학교 가기전과 자기 전 온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부모가 된 우리는 생활 속 여러 방면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때때로 주어진

中用真理教育我们的下一代，使他们认识神，懂真理，并且活在真理中。一生不偏离神的道，不被罪恶辖制。“求你用你的话使我脚步稳当，不许什么罪孽辖制我。”诗119:133。“我将你的话藏在心里，免得我得罪你。”诗119:11。让我们的孩子认识神的话，使神的话语指引他们走这一生平安的道路，“你的话是我脚前的灯，是我路上的光。”诗119:105。

使孩子成为虔诚的后裔，除了言传之外，更重要的是身教，以身作则。人的学习大多数都是从听和看来的，有样学样。对于在这数码时代出生的人，和整日在图像刺激中生活的人而言，榜样是最能吸引他们注意力的方式。要想他们认识真理，必须要让他们看见真理。要想他们认识耶稣，必须要让他们看见耶稣。那他们怎么能看见真理，怎么能看见耶稣呢？在父母的身上。如果父母教导他们要彼此相爱，但是自己之间却没有包容、体谅、饶恕、牺牲，他们怎么学彼此相爱呢？如果父母教导孩子不可撒谎，自己却在生活中充满了各式各样的谎言，无论是白色谎言、善意谎言，孩子都很难学到诚实，做不到主所要求的“是就说是，不是就说不是”（太5:37）的真理了。

기회를 잘 사용하여 생활 속의 진리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교육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아가며 진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지 않고 죄악 속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시 119:113) “내가 주께 범죄 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 119:11)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고 그 말씀이 자녀들의 길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합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 119:105).

제이는, 아이들로 하여금 경건한 자손이 되게 하려면 언어로 전달하는 교육보다 더 중요한 몸소 실천하는 교육입니다. 인간의 대부분의 학습은 듣고 보는 것에서 온다고 합니다.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디지털세대에 태어난 사람과 매일 시각적인 자극을 받는 사람들의 주의를 끌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알게 하려면, 진리를 보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려면, 예수님을 보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진리를 보게 하고 예수님을 보게 할까요? 바로 부모님의 모습을 통하여 알게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들한테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나서 정작 자신들에게는 사랑, 이해, 용서와 희생하는 모습이 없으면 자녀들은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나서 자신들은 생활 속에 여러 가지 거짓말로 가득하고, 그것이 어떤 선의의 거짓말이든 아이들은 정직함을 배우기가 어렵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마 5:37) 라는 진리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榜样的学习是孩子在家中最重要的学习，真理不是单靠嘴巴说的，真理是要活出来，行出来的。主耶稣和各圣徒们，他们各个都设立榜样，叫人可以效法学习。

约 13:15（主耶稣）

我给你们作了榜样，叫你们照着我向你们所做的去做。

徒 20:35 （保罗）

我凡事给你们作榜样，叫你们知道应当这样劳苦，扶助啓弱的人，又当记念主耶稣的话，说：『施比受更为有福』」

腓 3:17 （保罗）

弟兄们，你们要一同效法我，也当留意那些照我们榜样行的人。

帖后 3:9 （保罗）

这并不是因我们没有权柄,乃是要给你们作榜样,叫你们效法我们。

来 13:7（一信徒）

从前引导你们、传神之道给你们的人，你们要想念他们，效法他们的信心，留心看他们为人的结局。

彼前 2:21（彼得）

你们蒙召原是为此；因为基督也为你们受过苦，给你们留下榜样，叫你们跟随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방법입니다. 진리는 입으로만 얘기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가고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모두는 모두 모범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이 모두 믿고 따라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요 13:15)–Jesus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 준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바 주는 것이 받는 것 보다 복이 있다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행 20:35)–Paul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빌 3:17)–Paul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살후 3:9)–Paul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히 13:7)– A Believer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벧전 2:21)–Peter

상상해보십시오, 손에 담배를 쥐고 있는 아버지가 아들한테 담배피우면 안 된다고 하는 모습은 얼마나 약한 모습일지, 매일 도박하러 다니는 어머니가 아이한테 도박

祂的脚踪行。

想象一下，嘴巴里叼着一根烟的父亲叫儿子不要抽烟，那是个多么艰难的学习境况。常常跑去赌场的妈妈教训孩子不要赌博是何等的无力。自己不读圣经，对神的话语毫无兴趣的人，怎么教导儿女天天读经？

总括来说，要想得虔诚的后裔，敬虔的儿女，必须要从父母开始。有敬虔的父母，就有敬虔的儿女；不敬虔的父母，就会有不敬虔的儿女。种瓜得瓜，种豆得豆。加拉太书6:7告诉我们说："不要自欺，神是轻慢不得的。人种的是什么，收的也是什么。"

美国学者A.E.Winship在1900年做了一项研究，比较两个家族，写成《Jukes-Edwards》一书。他追踪他们近两百年以来的繁衍发展。两个同时代的家族，一家是信基督教的爱德华兹。另一家是著名无神论的宗师马克尤克斯。并且，无神论的马克尤克斯对爱德华兹曾说过："你信的那位耶稣，我永远不会信"！有人统计了爱德华兹家族200年后的情况，也统计了马克尤克斯家族200年后的情况，详细统计结果如下：

（一）爱德华兹家族

人口总数：1394人，其中有：300位牧师、神学家，100位大学教授，70位律师，60位医生，60位作家，30位法官，14位大学校长，3位议员，1位副总统。

（二）马克尤克斯家族

人口总数：903人，其中有：310位流氓，190位妓女，130位坐牢13年以上，100位酒徒，60位小偷，7位杀人犯和20名商人，其中有10名是在监狱学会经商的。

诗篇112:1-3说："敬畏耶和华，甚喜爱祂命令的，这人便为有福！他的后裔在世必强盛；正直人的后代必要蒙福。他家中有货物，有钱财；他的公义存到永远。"诗篇128:4又說："看哪！敬畏耶和华的人必要这样蒙福！"

儿童就是未来，注视儿童就是展望未来；然而，我们给未来"留下了什么？"甚愿基督徒的父母们都是敬畏神、虔诚的门徒，效法耶稣基督的榜样，活出真理的样式，带领并教育我们的孩童行在耶和华的道中，到老也不偏离。

箴言22:6「教养孩童，使他走当行的道，就是到老他也不偏离。」

은 몹쓸 것이라고 가르치는 모습을 얼마나 무기력한 교육방식입니까? 자신은 성경을 읽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관심도 없으면서 어떻게 아이들한테 성경을 읽으라고 가르칠 수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우리의 자녀들을 경건의 후손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로 성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부모님이 몸소 실천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습을 갖춘 부모에겐 경건한 자녀들이 있을 것이고; 경건의 모습이 없는 부모에게는 그렇지 않은 자녀들이 있는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우리의 속담대로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미국의 학자 A. E. Winship은 1990년에 두 가족을 비교하는 실험을 하여 <Jukes-Edwards>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두 가족의 백여 년 동안의 자손이 번영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한 가족은 예수님을 믿는 Edward가족이었고, 다른 한 가족은 유명한 무신론가 Max Jukes입니다. 무신론이었던 Max는 Edwards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믿는 그 예수, 나는 영원히 믿지 않을 것이오!" 어떤 사람이 200년 후의 Edwards 의 가족상황과 200년 후의 Max가족의 상황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Edwards가족

총인구: 1394명

그중에 300명 목회자, 신학자, 100명의 대학교수, 70명의 변호사, 60명의 의사, 60명의 작가, 30명의 판사, 14명의 대학교총장, 1명의 정치의원, 1명의 부통령.

Max가족

총인구: 903명

그중에 310명이 거지였고, 190명의 창녀와, 130명이 13년 이상 감옥생활을 했고 100의 술주정뱅이와 60명의 도둑과 7명의 살인범죄자와 20명의 장사꾼이었고 그중의 10명은 감옥에서 장사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시편 112:1-3말씀에는"1.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2.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여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3.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음이여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있으리로다", 또 시편 128:4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아이들의 교육을 중시하는 것이 바로 미래를 전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래인 아이들에게 무엇을 남겼습니까? 그리스도인 부모님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며 예수님을 따라 진리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을 이끌고 여호와의 말씀 속에 거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끝까지 어긋나지 않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 22:6)

자랑스런운 아빠, 엄마에게

송지훈 학생

사랑하는 부모님께,
제가 쓴 이 편지는 최고의 편지는 못 되더라도, 저의 온 마음을 다한 편지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해요. 항상 저희들을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부족함 없이 키워주시고, 언제나 저희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시는 아빠, 사랑해요.
제가 항상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표현을 잘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아빠 아시죠? 아빠는 언제나 저의 영웅이란 걸요! 고된 일 때문에 피곤하셔도 저희를 위해서라면 학교에 데려다 주는 일부터, 작은 일 하나하나 모두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커서 꼭 갚을게요.
아빠가 농구를 못하는데도 저랑 같이 농구도 해주시고,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주시는 아빠의 모습이 저는 너무 좋아요.
특별히 아빠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시는지, 저는 그 모습이 너무나 감동이고, 감사드려요. 덕분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와 함께하시는 걸 알고 느낀답니다.

엄마, 엄마는 저를 언제나 옳은 길로 인도해주시고, 제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성적이 나쁘던 좋던 변함없이 저를 자랑스러워하시고, 믿어주시고 지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또 감사한 것은요,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가족의 화목한 분위기를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 기쁘고 좋을 때도 있는데, 엄마는 우리 집의 분위기 메이커에요. 그래서 우리 집은 하루도 웃음이 떠날 날이 없지요. 엄마의 밝은 성격과 재미있는 모습들로 말이죠.
특별히 엄마가 저와 누나, 또 동생들을 대하실 때 항상 공평하게 최선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려요. 몸이 아프셔도 방청소, 빨래 같은 일도 다 해주시고, 우리를 항상 정성으로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일 다녀오시면 많이 피곤하실 텐데 항상 그렇게 돌봐주셔서 저희는 다음날 학교에 기분 좋게 갈 수 있어요.

저희뿐만이 아니고 언제나 자신보다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신경쓰시는 모습은 어떤 땐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아빠, 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은요, 제가 나중에 커서 아이를 갖게 되면 엄마처럼, 아빠처럼 똑같이 하고 싶다는 거예요. 같이 여행도 다니고, 좋은 추억도 만들고, 좋은 기억을 잊지 않도록 이야기도 많이 하고 말이죠.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많이 힘드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희들을 위해서 힘내시는 모습에 저희가 힘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엄마 아빠의 모습을 통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매일 엄마 아빠께서 할아버지 할머니 대하시는 것을 보고 효도를 배웠습니다. 저도 나중에 똑같이 효도 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빠, 할아버지께서는 참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셨죠? 부탁드리는 것은 그 신실함을 꼭 이어서 신앙 안에서 저희 온 가족을 인도해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 예수님께 신실함이 무엇인지 날마다 보여주세요.
감사의 내용을 다 적으려면 이 종이가 부족할거 같네요.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사랑해요. 할머니 사랑합니다. 그리고 힘내세요.

사랑하는 아들 송지훈 올림

To my loving parents,

I'd like to start off by saying that this letter is not the best, although it comes from my heart and I mean all the words that I say.

I'd like to thank you both for caring for me and my sisters with all your love. I'd also like to thank you for all the things with which you have provided our family. such as giving us food to eat and a roof to live under.

아빠, I love all the things that you do for our family. I know that I don't always show my love and appreciation and I am sorry, but in my heart I think of you as the hero in my life.

You do so much for our family even though you are tired, and we appreciate that. You do things as small as dropping us off at school and things as big as working all day so that you can pay for things that we need. I love the way you play basketball with me even though you don't know how to play. You show our family that it is okay to be bad at something as long your try your best.

One of the things that i love most about you is how much you love God and how much you pray for our family. I know that God is always by my side because you are always praying for me.

엄마, you are the person in my life who always leads me into the right path. You are always there for me when I need you and You are there when there is no one for me, and I am grateful for that. I love that you support me in whatever I do, From my worst to my best grades, I know that you are always there and that you are proud of me.

I love that you always take care of our family's health and feelings. Whenever someone is feeling down, you would do something funny to cheer them up. No one in our family can go one day without laughing because of your goofy personality.

I love how fair you are between me and my siblings. You are always trying to help our family in some kind of way and you do the best job. You do the things that we are supposed to do, like cleaning our rooms and folding the laundry. I also love that you take care of us even when you are sick. You always put everyone's needs before your own I think that is amazing. Thank you for all of the times you have left work just to stay home and take care of us. Eveytime we were sick, you were there making sure that we felt better so that we can go to school the next day.

Both of you make the perfect team together, and I always look to you and hope that I can be like you one day. I would love to treat my kids like you treated me. Thank you for taking us to wonderful places; we will never forget the memories that we made there.

Lastly, I want to thank you guys for cheering us up as a family with the recent passing of 할아버지. 엄마, 아빠, I saw you honor your parents every day. And I learned what it meant when the Bible says to "honor your parents." I learned through your actions every day. I promise that I will honor you like you honored 할아버지.

아빠, please continue in your faithfulness to God just like 할아버지 showed us. Although he is gone, his faith is still with us. Please show us what it means to fear God and to be faithful to his son Jesus.

I can not fit all the things that I am thankful for in this sheet of paper but I want to finish this letter by saying "I love you 엄마 and 아빠. 할머니 사랑해요.
그리고 힘내세요".

Sincerely ,
your son, Joseph Song

사랑하는 엄마에게

엄마, 어버이날 축하드려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오래 떨어져 있었고, 이제 겨우 같이 산지 일 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돌아보면 엄마한테 서운했던 일도, 그리고 고마웠던 일도 참 많이 있었던거 같아요.
"엄마 기억나요?" 저를 보면 못 떠날것 같다고 제가 집에 없을 때 한마디 말없이 미국으로 가셨어요. 갑작스런 이별에 철부지였던 저는 그저 버려진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항상 다른 아이들이 엄마랑 대화하고 웃는 모습을 볼 때면, 저는 정말 부럽고 엄마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시간이 지날수록 엄마에 대한 감정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엄마에 대한 기억이 점점 잊혀지고 내가 생각하던 엄마는 사랑대신 돈주머니로 바뀌어갔지만 그래도 "엄마가 내 곁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굉장히 궁금한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엄마없이 10년이 지났어요.

바야흐로 2013년 9월, 전 엄마로부터 이민통지서를 받았지요. 정신차려보니 전 이미 비행기안에 떡하니 앉아 있었어요. "10년동안 보지 못한 엄마의 모습은 변했을까?",
새아빠와 동생의 모습은 어떤지, 미국은 어떤 나라인지…별의별 질문이 머리 속을 꽉 채워서 잠을 설치기도 했었죠.
그렇게 공항에서 오랜만에 만나게 된 엄마는 저를 찾으시고 꼭 안아주셨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아마 그동안 제가 무시하고, 마음 한 구석에 묻어두었던 엄마에 대한 그리움과 서러움이 모두 봇물 터지듯 터졌던거 같아요.

하지만 그 후 같이 지내온 날들은 엄마와 제 생각처럼 그렇게 순탄하진 않았어요. 중국에 있을때 아빠는 간섭을 많이 안 하셨는데 엄마는 다르더라고요. 마치 자유를 누렸던 야생동물이 철창에 갇힌 듯 엄청 불편했었어요.
사소한것에 자주 싸우다가 언제부턴가 엄마랑 저는 쿵짝이 잘 맞게 되었네요.

김미혜학생

엄마는 모르시겠지만, 엄마는 저한테 영향을 제일 많이 끼치는 분이세요. 교회도 엄마 때문에 처음 와보게 되었지만 지금은 제가 엄마보다 교회를 더 좋아하는것 같네요.
처음 예수님께서 죄가 많은 저희를 싫어하지않고 오히려 저희 죄를 짊어지고 희생한 이야기를 알았을때 엄청 울었어요. 부질없는 제가 이런 사랑과 은혜 받았던 사실에 감사가 넘쳤던거예요. 요즘은 찬양에 흠뻑 젖어서 어딜가나 찬양만 듣고 노래하고 동생도 "예수님께서 나 천국간다고 말씀하셨어" 라고 매일 말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근심이 없어야 하는데 엄마는 항상 걱정거리가 많아서 탈이예요. 엄마, 우리는 부족한 것이 많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매일 매일 보살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요.

10년 전에 "엄마가 날 버리고 영원히 미국에 간거야?"라고 철없이 물어보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눈 깜짝할 사이에 저는 키도, 마음도 많이 성장했어요. 힘든일도 많이 겪었지만 신기하게도 그 시간이 무사히 잘 지나갔어요. 그 때는 잘 몰랐지만 엄마가 먼저 이 곳에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저를 위해 기도하셔서 오늘의 제가 있는거 라고생각해요. 또 와보니 저를 위해 기도하셨던 성도님들이 있었더라고요. 정말 신앙의 힘,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다른 아이들과 비해서는 저는 엄마와의 추억은 많이 없어요. 어버이날 같은 명절에 그전에 보냈던 시간에 대해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하는데 저는 그럴수가 없었죠. 하지만 앞으로 엄마랑 같이 보낼 시간들과 같이 만들어갈 추억들을 생각해봐요. 마치 지금 이 순간 처럼 마치 며칠 전 제가 어버이날 편지를 쓴다고 하니까 엄마가 안 좋은 말만 쓰는게 아니냐고 장난도 쳤던거 처럼 앞으로 주님 안에서 이런 행복한 추억들이 가득한 날들을 기대하니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가네요.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저를 끝까지 사랑해주셔서 감사해요.
세상에서 엄마를 제일 사랑하는 딸

미혜올림

우리아빠의 손

박선해사모

우리 아빠의 손은 매우 거칠어 손을 잡을 때 오히려 잡은 제 손이 불편합니다. 이제 이민생활이 33년째 되시는 우리 아빠! 우리들을 위하여 이민결정하시고, 7 년 동안 떨어져 있어야하는 슬픔 속에 우리가정은 참 잘 견디어 냈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니 우리아빠의 손으로 친필하신 따뜻한 희망의 편지가 2주마다 한통이 한국으로 붙어지어 우리에게 끈끈한 가족애를 만들어 간 것 같습니다. 미국이라 좋은 곳, 고생 없는 곳 이라 생각되었는데...

Our Father's Hands - Sunhae Park

Our father's hands were so rough that it was always uncomfortable to hold them. Our father has been an immigrant for 33 years. After having made the decision for us to immigrate to America, he went on ahead of our family, enduring seven heartbreaking years apart from us. Now, as we look and reread the heartfelt and warm handwritten letters of hope that he had sent to us every two weeks during that time, we can see that those were what had held us together as a family. We had always thought of America as a good place; a place where there is no suffering...

엊그제, 제 남편과 국제시장영화를 DVD로 보았습니다. 그 영화 속에서 강하시고, 든든한 우리아빠의 마음속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빠! 사춘기 때 저는 그런 아빠가 이해가 되지 않았고 왜 그렇게 화가 많으실까? 뭐가 그렇게 급하실까?

The other day, my husband and I watched the movie, "Ode to My Father" on DVD. In that film appeared a strong and assuring figure through whom I understood the heart of our own father. Our father never looked back and only strove ahead to live life. As an adolescent during puberty, I couldn't understand what kind of father would be so angry all the time. What was so urgent for him?

아마 저도 아빠시대를 살았다면 더했을 겁니다. 우리아빠를 보면 생각나는 것 두 단어 무조건 뛴다! 그 열심 있는 열정 속에 뜨거운 사랑! 바로 나 자신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그렇게 몸이 망가지도록 뛰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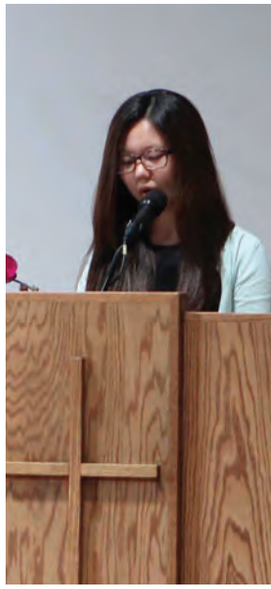
Perhaps if I had lived in his time, I would have behaved even more severely. There are two words that come to mind when I think of our father: "Just go!" In his zealous passion was his fiery love. It was the kind of love that denied his own self, yet worked himself to the point of wearing out his body for the sake of the family he loved so dearly.

한 달 전 아빠 심장수술 땜에 병동에서 10일 간 아빠 옆에서 아빠 손을 잡아봅니다. "손이 왜 그래?" "으응..." 손이 이 정도면 심장은 어떨까? 옛날 어르신의 말씀 중에 속이 까맣게 탔다. 라는 말이 문득 생각났습니다. 한 번도 우리에게 불평 안하시는 우리 아빠!

A month ago, my father was in the hospital awaiting surgery. I spent those ten days with him and held my father's hand. "Why are your hands like this?", I asked. He simply grunted as fathers do. "If his hands are like this, what condition would his heart be in?", I thought. I realized then what the old Korean saying, "My insides are burnt black" meant. Our father never once complained to us.

아마 우리 삼형제가 불평 없이 열심히 사는 것도 우리아빠의 정신을 닮은 것 같습니다. 아빠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함과 진실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 우리를 위해 날마다 먹여주시고, 안아주시고, 살려주시고, 일으켜주시며, 치료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의 손을 생각해 봅니다.

Maybe my two brothers and I resemble him in that way - living life without complaining. Through my father, I have learned of God's faithfulness and truth - The right hand of God. The God, who every day feeds us, embraces us, saves us, upholds us, and heals us with his power. I think of God's mighty hand.



주님의
아름답고

영성훈련

믿음의 달인을 향한 복된 걸음

이무근 장로

제자훈련을 마치고 계속되어지는 영성훈련을 받는 동안 제 자신에게 다가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 영성일기에 남겨둔 것을, 본래 일기는 혼자 간직하는 것이지만, 간증이라는 순서를 주셨기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국 TV에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종사한 사람이 전문적인 일에서 부터 생활 속의 작은 일에 이르기 까지 그 분야에 능숙한 자가되어 보는 사람들을 놀라게, 즐겁게, 도전받게 하는 일입니다.
나의 지난 30여 년간 이곳 뉴욕에서의 신앙생활을 돌이켜 보면 초등학교에서부터 학교 공부한 시간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만약 어떤 기술에 그 만큼의 시간과 정성을 쏟았더라면 저처럼 손재주가 없는 사람도 지금쯤은 한 분야에 준 달인은 되었을 것 같습니다. 막상 나의 믿음생활은 어떠한가 라는 질문이 온 것입니다.

동행하는 삶, 기도, 헌신, 전도, 순종, 인내, 헌금 등등 말씀의 단어들은 감히 접근하기 어렵고 심지어 교회바닥에 떨어진 쓰레기 줍기, 처음 보는 분에게 인사하기 무엇 하나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내 놓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형식적인 경륜은 있는데 직분은 맡았는데 경건의 연습과 훈련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4세기 중반 유럽인구의 1/4에서 1/3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흑사병이 일어났을 때 한 마을에서 성직자가 병 낫기를 함께 기도하자고 사람들을 교회로 모이게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전염병이 더 번지게 되어 마을 사람들이 거의 죽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 대한 사랑은 있었지만 전염병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20세기 초에 원자력이 응용되어 인류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있지만 그것이 원자탄이라는 무기가 되어 사용되었을 때 수많은 생명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있었지만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지식과 사랑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처럼 신앙의 경륜이 길어질수록 직분을 맡을수록 경건에 이르는 훈련으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금번 영성훈련을 통해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조금 오래되었다고 이제 무엇을 조금 안다고 논리를 펴고 목소리에 힘주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자기변명과 합리화에 익숙하게 되어가고 있지 않는지 제 자신을 살펴봅니다.
일주일에 40내지 60시간의 설교말씀을 했다는 조지 휫필드 목사님이 남긴 말입니다.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

이와 똑같이 열정을 가진 분이 제자훈련, 영성훈련 강사로 계십니다.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드리고 은혜 못 받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은혜 못 받고 동생을 죽인 것처럼 예배드리고 은혜를 못 받으면 자신 뿐 만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도 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영성훈련 없이는 영적 불감증을 없앨 수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녹이 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때가 쌓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자훈련 영성훈련에 참여하셔서 믿음의 달인을 향한 복된 걸음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 훈련의 기쁨

안녕하세요.
저는 3기 제자훈련 훈련생 이승재라고 합니다.
먼저 12주간의 제자훈련을 은혜가운데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승재 집사

안녕하세요. 저는 3기 제자훈련 훈련생 이승재라고 합니다.
먼저 12주간의 제자훈련을 은혜가운데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자 훈련을 시작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훈련을 너무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제한되어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도 기회가 오겠지 생각했는데 두 번째도 아니었습니다. 제자훈련을 받기 위해 1년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제자훈련을 받고 싶었던 이유는 저는 결혼 전 선교단체 간사로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는 혼자 훈련을 참 많이 받았는데 남편과 같이하는 훈련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꼭 같이 하겠다는 마음으로 남편의 의견도 묻지 않은 채 1년을 기도해왔습니다. 제자훈련 3기, 이제 드디어 저희 차례가 왔습니다. 남편의 처음 반응은 싫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며 모집 거의 마감 전 "그러면 나는 이것은 하고 이것은 하지 않겠다"라는 남편의 알 수 없는 딜과 함께 하겠다는 승낙을 받았습니다.

2주째 되던 날 제자훈련을 마치고 남편에게 조심스레 물어보았습니다. 제자훈련 어떻냐고 좋다고 왜 이런걸 처음 왔을 때 안했냐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이제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알 수 있었고 저도 훈련에 전심을 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강의마다 제안에 예전에 훈련받았던 그것으로 살려고 나도 모르게 형식화 되었던 것이 많이 부서지는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나를 처음 만나주셨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다시 한 번 절절하게 회복되는 시간 이였습니다.
나눔의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 나누지 못해서 내안의 은혜들을 그냥 썩혀버리고 남이 은혜를 나누는 것에 대해 불편하게 생각했던 나의모습들을 회개하고 나눔의 풍성함을 누리는 시간 이였습니다.
영성일기와 큐티를 통해 글로 쓰면서 받는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글 씀을 통해 좀 더 마음으로 깊이 묵상하게 되었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글로 쓰는 것이 말로 하는 것 보다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편지하듯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 글로 적으니 말로 은혜를 나누는 것보다 몇 배의 은혜가 내안에 남는다는 것을 아는 시간들이였습니다.
예전엔 교제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헌데 언젠가부터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워 교제 하지 못했었는데 교제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제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들에 대해서도 다시 발견하고 나의 은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많이 듣게 되는 시간 이였습니다.
성경을 1독하며 이제는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구절구절마다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보려고 노력하는 제 모습을 보며 이제는 과제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시간은 더 길어졌지만요.
성경을 읽을 뿐 아니라 암송을 통해서 더욱더 마음에 새기게 되었고 외운 말씀이 말씀으로 전해질 때마다 마음속 깊이 새겨짐을 경험했습니다.
제자훈련을 마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영성일기와 큐티는 꼭 하자 성경을 좀 더 깊이 읽자 라고 말입니다. 헌데 제자훈련을 마친지 이제 한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또 해이해 집니다. 이래서 훈련이라고 칭하는가 봅니다.

내 몸에 익숙해 질 때까지 내가 다시 뒤돌아 가지 않을 때 까지 훈련의 여정은 계속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끔 넘어지더라도 예수님 나와 같이 걸으시고 나와 같이 훈련받았던 가장 든든한 남편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교회의 지체들이 있기에 이들이 나를 격려하겠구나, 위로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너무나 가슴 벅찹니다.

제자 훈련은 쉽지 않았습니다. 훈련이라는 단어에 긴장하고 과제에 힘겨워했지만 그 안에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긴장되고 힘겹지만 나의 영혼에 큰 득이 되는 시간 이였습니다. 제자훈련 1번의 끝남이 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마지막 강의 때 이제 12명의 제자를 삼으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마도 진정한 훈련은 이제부터가 시작이겠죠. 나의 삶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또 다른 제자를 낳고 제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지 고민하며 배운 것을 적용하며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기를 다짐해 봅니다.

이 제자훈련은 어느 특정한 누군가가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받아야 할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예전에 받은 훈련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 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좋은 훈련이 우리교회에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 훈련에 함께 참여하셔서 저와 같은 기쁨을 맛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훈련해주신 목사님과 스텝 되셔서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

조윤지 어린이

안녕하세요?

하랑예찬 1기 4학년 조윤지 입니다.
저는 이번에 제자훈련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던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었어요
친구들과 같이 함께 모여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 배우는 시간은 많이 즐거웠습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도 배웠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잘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재미있었던 것은 성경 구절을 외우는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와나' 대회도 열심히 준비하고 말씀 외우는 것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힘들었지만 제자훈련이 저에게 아주 중요하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친구들과 같이 제자 훈련을 할 수 있게 해주신 부모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족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엄마, 아빠도 오늘 제자훈련 졸업해요.
엄마, 아빠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KAPCQ Rise Up and Build Concert Reflection

Denzel Martyr

Education

2010: HS Diploma - Richard C. Spoto
High School

2015: Associate of Arts in Religion -
Liberty University Online (Currently)
Professional Experience
Currently: Founder of XC:91 Clothing

2015: Little Marsh Chapel AME Zion Church
St. Pauls, NC

2014: Living Water Assembly of God
Spring Lake, NC

My brief time at the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 was truly an amazing experience. Prior to my arrival, I was already anxious to be a part of the entire “Rise Up & Build” event, but I had no idea that the turnout and reward would have been as impactful as it was!

To have seen so many kindred spirits in one place, and to have been able to witness the true love of Christ from people I have never met, was breathtaking.

Pastor David “Doogie” Park, along with the aid of Deacon Seong Nam Hwang and Teacher Tony Lee, made sure that all of my accommodations were met with the utmost professionalism. From the staff members, all the way down to the children, everyone was very “hands-on” with their jobs within the event.

Each youth group member prepared extensively through prayer and practice. I was truly impressed by the overall cooperation and teamwork that they displayed!

All of the talented acts that were put together that night were nothing short of miraculous. I am pretty sure the Lord was well pleased with all the praise that was given to Him that evening!

I also loved the teaching that I was able to observe on the next morning for Sunday services. Pastor David Park is a true Man of God! His way of presenting the Word of God to the youth is clear, enjoyable, and precise. All in all, I was very fascinated with the time I spent at the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

In the course of only two days, I have gained so many memories, connected with more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and even gained new friends! There are amazing things coming out of KAPCQ. I will continually pray over their future endeavors in the body of Christ!

I am absolutely ecstatic about my next visit to their church sometime in the future.

잠시 동안 퀸즈장로교회에 있으며 은혜의 감동을 경험하였습니다. 이곳에 도착하기전서부터, “Rise Up & Build”중등부 부흥집회에 대하여 많은 기대를 가졌지만 이러한 영향력으로 바뀌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여 한자리에 모여 그리스도의 진실 된 사랑을 증명하여 나타냄을 보는 것은 숨을 막힐 것 같은 감격이였습니다.
박성권 전도사님과 황성남 부장집사님 그리고 이병찬 선생님께서 숙식과 저의 여정을 전문적으로 최선을 다해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든 스텝멤버들과 어린 중등부학생까지 이 집회를 위하여 자기의 일같이 손 모아 열심을 다한 것이 보였습니다.

각 그룹마다 기도와 연습을 강하게 준비한 것도 보여졌습니다. 특별히 모든 진행에 있어 팀워크와 협력에 감탄하였습니다. 그 집회 저녁 날에 모든 은사들이 함께하여 보여짐이 기적과 같았습니다. 그 저녁집회를 통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찬양을 기뻐 받으셨음을 확신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인 주일날 중등부예배를 드리며 가르침 또한 좋았습니다. 박성권 전도사님은 진정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전도사님은 중등부 학생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순전하고, 재미있고, 명확하게 설명을 하여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퀸즈장로교회에 있는 동안 흥미롭게 지내왔던 시간이었습니다.
이틀 밖에 되지 않는 시간 동안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형제자매들과 연결되며, 많은 추억을 가지고 갑니다. 퀸즈장로교회에서 많은 은혜가 흘러나오며, 그리스도의 몸 지체에서 미래를 위하여 계속적인 기도로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 교회에 다시 초대받을 것에 희열을 가지고 최대의 존경과 성심을 드립니다.

Rise Up and Build

At KAPCQ, we will be building a new edifice for the new English/cultural ministry. We are happy to expand God's Word, as well as opening the gates to people who do not believe in God and His only son, Jesus Christ, who carried our sins on the cross. We will not just build the new church on our love, but we will build it on God's love and the words of wisdom He has given to us through the Bible. We will create a church that is holy and pleasing to God.

In the youth ministry, Pastor Doogie told us about how the Israelites were chased out of their city by the Babylonians. However, even with the many obstacles, they rebuilt their town. They renewed their broken city in fifty-two days. The Israelites would be prepared for battle even when building. They had "a hammer in one hand and a sword in the other". But most importantly, they had hope and determination. Although it will take a lot more than fifty-two days to build the new sanctuary, we will build with a hammer in one hand and the Bible in the other.

I am joyful to know that we will be expanding our church. When I first came into this church in the sixth grade, I was fascinated by the wonderful sermons that our pastor presented. I learned much more about God in this church, which made me glad that I could be the Christian God wants me to be. Expanding the church means that more people will be able to learn about God and become the Christian God wants them to be.

My hopes for the new, expanded church are that many people will be able to hear the fulfilling and miraculous words of God. Everyone in KAPCQ is preparing for this occasion because we are all happy that we can spread God's Word and love. Also, I hope that we will evangelize and bring more people who do not know about God into the church. We have a dream to share God's Word, and KAPCQ is working hard to make that dream come true. Here at KAPCQ, we will rise from the doubt and sin that shrouds our hearts, and build together with God's Word.

Hannah Jeong
정예영

Faith

Do you know the story of Nehemiah and how he rebuilt the city of Jerusalem? In the story, Jerusalem is captured and destroyed by the city of Babylon because the city of Jerusalem had disrespected God. All of the citizens of Jerusalem were captured and forced into slavery. Then Babylon gets captured by King Artaxerxes and the Jews are freed. King Artaxerxes gives permission to Nehemiah to go to Jerusalem to rebuild it. When Nehemiah arrives to the fallen city, he sees that many things needed reconstruction, such as the walls, the fountain gate, and the King's pool. The next day, Nehemiah and his men start rebuilding the city. There were people who mocked Nehemiah and his men while they were rebuilding Jerusalem. Nehemiah responded by saying, "The God of Heaven will give us success. We, his servants, will start rebuilding, but as for you, you have no share in Jerusalem or any claim or historic right to it" (Nehemiah 2:20). This means that if we do not help our Lord as His servants, He will not invite us to his Kingdom.

First, Eliashib and his people rebuilt the Sheep Gate. Then the sons of Hassenaah rebuilt the Fish Gate. Joiada, son of Paseah, and Meshullam, son of Besodeiah, rebuilt the Jeshanah Gate. The Valley Gate was rebuilt by Hanun and the residents of Zanoah. The ruler of the district of Beth Hakkerem rebuilt the Dung Gate. A lot of people helped rebuild Jerusalem and its walls. When Sanballat was informed that the walls of Jerusalem were being rebuilt, he and his friend Tobiah planned to sneak in among the group of workers, and kill them. However, their plan failed because the Lord helped Nehemiah and the workers. Because Sanballat and Tobiah kept trying to attack the workers, the workers were forced to rebuild the city while protecting themselves.

Just as Nehemiah and the workers did, we should rebuild our faith in the Lord. We can do this by first believing that Christ died on the cross for our sins. Then, we can read the Bible and know that our God loves us.

James Shen
신명재

We should build the wall around our faith to protect it from the devil, like Nehemiah protected it from the evil Sanballat.
This can be accomplished by going to church on a weekly basis and learning more about our Lord and Savior, and teaching the Love of Christ to others who don't know about it. While building our faith, we should put on the armor of God to protect our spiritual selves from the devil. If we do this, we will have a strong faith in the Lord, and be invincible to the devil, and be like Nehemiah, who was faithful in the Lord and listened to His commands, and succeeded.

How can we overcome temptation?

How can we overcome temptation? We can overcome temptation by praying and confessing our sins. The Bible states, "He will not let you be tempted beyond your ability, but with the temptation he will also provide the way of escape, that you may be able to endure it" (1 Corinthians 10:13). This verse shows how our Lord will know we are tempted and provide the way of escape. The Scriptures tell us that we all face temptations.
1 Corinthians 10:13 also says, "No temptation has overtaken you but such as is common to man." Perhaps this provides a little encouragement as we often feel that the world is bearing in on us alone, and that others are immune to temptations. We are told that Christ was also tempted: "For we do not have a high priest who cannot sympathize with our weaknesses, but One who has been tempted in all things as we are, yet without sin" (Hebrews 4:15).
Each of Satan's temptations was met with the same answer: "It is written," followed by Scripture. When the Son of God used the Word of God to end the temptations, "the Devil left him" (Matthew 4:11). Christ Himself demonstrated the Word's power when He resisted Satan's temptations with quotes from the Old Testament. Good intentions and prayer are important in your struggle against sin, but be sure to also make a plan about how you will battle the temptations in your life. When you combine prayer, determination, and a plan based on God's Word, you will find victory.
Even if a temptation seems to come out of nowhere, if you pray and think about it, you can usually identify your behavior. For example, when Joseph had been taken to Egypt and Potiphar's wife tempted him, Joseph knew the Lord was by his side, and since he had the Word of God, he wasn't tempted. This proves that if the Word is with you and you believe everything through Christ, you will not fall into temptation.
Proverbs 4:14-15 tells us, "Do not enter the path of the wicked, and do not proceed in the way of evil men. Avoid it, do not pass by; Turn away from it and pass on." We need to avoid the path of the world that leads us into temptation because our flesh is weak. We are easily carried away by our own lusts. You can provide a little encouragement as we often feel that the world is bearing in on us alone.

Jessica Kim
김규원

Right Choice

Nehemiah 2:18 - "I also told them about the gracious hand of my God on me and what the king had said to me. They replied, "Let us start rebuilding." So they began this good work."
All across the world, there are people who don't believe in God. They claim that God is fake and not real, yet no matter how many facts and "science" they put up as an excuse, they cannot prove that God is fake.
God is real.
In the Bible, God tells us to spread his word. Some believe in this, yet don't do anything, while others go to great lengths trying to spread the Word of God. These people cannot be withheld from shouting God's words at the top of their lungs. Yes, the people who go through great measures to tell God's Word get ridiculed and persecuted for "laws" that are excuses against God. But if only one, just one, person realizes that God is real, because of that

Priscilla Pang
팽소영

person, their purpose is fulfilled. This is why we must rise up and build.

We have to rebuild the wonders that God gave us, that humans have destroyed and ripped apart, to give people a new pair of glasses that see God's works correctly. But before that, someone has to build the glasses first so that someone else can see through them. Without someone doing something to rise up and build, we are going to be surrounded by the terrors that mankind has made. Sin will surround us and consume us one by one. But when someone builds on the rock of God, people are bound to realize what that person is doing and that it is righteous in our Father's eyes. The more someone believes in the Bible and everything in it, they are building the spiritual house of God more and more.

In R.U.B., a bunch of kids are rising up and building, literally and spiritually, a house of God that will help the people that have been deafened and blinded by sin, to hear and see again. Even it is only a bunch of kids who are rising up and building, they are still doing more than some adults who don't know God yet. The difference between some adults and everyone working to make "R.U.B." run is the amount of faith that helps mature us.

R.U.B. is a work of art that God has called KAPCQ Junior/Senior High to do. Will you help us rise up and build, or are you going to keep going with the burden of sin on your shoulders? Let's cast that burden of sin on Jesus. It's really up to you to choose him because God gives us a choice. I certainly chose the right choice. What about you?

Quiet

Quiet.
Even the word sounds like
the very thing itself.
It hands you a photograph
of a girl with thin lips
and hidden expressions
and a face concealed
beneath a veil of dark hair
that falls past her eyes.
She is camouflaged
but not by her own choice.
Like an insect in cobwebs
she feels trapped
in a tangle of loudness,
in the stickiness of extraversion
clinging at her from every
direction.
In a world full of small talk
and too many acquaintances,
she wants someone to see
past her defences, her walls;
someone to uncover
her blanket of timidity;
someone to finally see
her for who she is,
the very soul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by the hands of her Father.
But no, she realizes
the world isn't that kind.
It's an all too fast-paced life
where bright and bubbly wins
the race;
where people embrace outgoing spirits
and unintentionally neglect
those who don't catch their
eye.
She would withhold her words
she secretly longed to speak.
And instead, she collected
libraries of paragraphs,
novels of speeches,
storybooks of sentences,
saving every letter
of every word
for someone who would have
enough time,
enough patience,
enough space in their heart
filled with their own desire
to be noticed
to listen.
And maybe that's the reason
why
she found comfort
in a Rivers & Robots album,
in their soft voices
and mellow tunes
that seemed to reflect her
in their songs of worship.
And maybe that's the reason
why
she longs for every Sunday
when she can lift her hands in
praise
like a child begging daddy
to lift her up,
to the only one willing
to hear her voice.

Ashley An
안영서

A Happy Memorial Day Picnic

Charles Hwang (QPEM)

Praise God! The Lord blessed us with such a beautiful day to have this church picnic. I'm so glad that my family and I were able to join this year's church wide time of fellowship. Last year, we unforturately missed the picnic as a result of our move to New Jersey. The Lordbrought us back to QPEM a few months ago. We nearly missed out on this year's picnic due to our 2 year old daughter, Joy's illness leading up to that Monday. Joy made a quick and miraculous recovery from a respiratory illness, praise God, just in time for the picnic. It was our first picnic with KAPCQ-QPEM since joining the church in October of 2013. My family, especially Joy and I had a great time, especially Joy. It was great to see her running around, playing with other children and enjoying the day.

I was happy to see so many QPEMers come out and represent the ministry. From the Olympic-style opening ceremonies to the closing worship and everything in between, it was awesome to see so many believers in the Lord come together to worship, fellowship and take part in all the outdoor festivities at beautiful Belmont Park. The food was great and plentiful to say the least. I can't remember the last time I had so much bulgogi. The bulgogi cheeseburger, spicy sausage with the kimchi on the side was absolutely delightful. God bless the people who prepared and packed the food for this occasion. I'm just so thankful to brothers like Deacon Tae Whang, Deacon Dave Shin, Deacon Jay Youn and Tony Lee, who went out of the way to happily serve and cook all day – flipping burgers for hungry people like myself.

I had no idea there were so many different groups at KAPCQ. I knew it was a big church, but to see all the various ministries representing this church during the opening ceremonies and coming together as the English, Korean and Chinese congregations was a beautiful thing. I will remember the opening worship—from Deacon Tae's English & Korean prayer to Rev. Kim's encouraging and passionate message (God bless the interpreter - Pastor Doogie!) to singing hymns and songs in one voice—it was truly a great display of Christian unity and devotion to our Savior. Praise God! It was great to see our Pastor Emeritus Rev. Chang in attendance to give the benediction during the opening service. May the Lord continue to sustain him and grant him healing and strength.

It was a blessing to participate in the foot volleyball competition. When Pastor Peter and Deacon Dave asked if I wanted to play and represent QPEM, I happily obliged. It brought back memories of my days in Korea when I first picked it up and played on occasion with my colleagues while working as a school teacher there. I think it's a fun team sport that isn't all that physically demanding which is why older men in their 40s and 50s commonly participate and do well. Awesome worship, great food, and tremendous fellowship, not to mention the gorgeous weather, is what I will remember about my first KAPCQ Memorial Day Picnic. It was certainly a memorable Memorial Day in many ways. Praise God for the body of Christ at KAPCQ!

Memorial Day 체육대회

HuaLin Zheng

이날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영웅들을 추모하는 기념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우리는 체육대회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맘속으로 이 활동에 대한 거부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맘속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여기 참여하는 것은 옳은 것이고 주님께서 이 행사에 함께 하시여 오직 먹고 마시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함께 즐기는 오락 중에서 우리 모두에게 더 많은 지혜를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개막식에서 담임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에 저는 이 행사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제목은 잠깐 잊으시고 모든 항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랍니다.” 목사님의 간단한 한마디의 말씀이 저의 많은 생각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렇습니다! 평소의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복을 빌고 있진 않는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은 이루어질지어다.” 하지만 제 생각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집에서 기도만 하라고 하신 말씀은 아닐 것이고 대신 우리 자신의 행함으로 그리스도인의 직책과 인애와 용서와 희락과 선함을 이루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일 것입니다.

이 품성들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있어야하는 품성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메모리얼 추모일을 임해야하는 우리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이번 행사 중에 저는 많은 형제자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중국, 미국 등 국적이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지만 평등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함께 하게 되어 정말 즐거웠습니다. 우리는 함께 공도 차고 줄넘기도 하고 제기도 차는 등 각종 종목에 함께 참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모든 사람의 얼굴에는 즐거운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마지막 제비뽑기 종목에서 두 가지 일이 저에게 감동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성도분이 익명으로 교회에 천불의 헌금을 기부하였습니다. 제 생각에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이런 큰돈을 이름도 남기지 않고 선뜻 내놓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용기로 기부한 사람을 탄복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퀸즈장로교회에 대한 은혜에 감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비뽑기에서 1등에 당첨된 성도 분께서 당첨된 상품을 교회에 기증하여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보낸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미소를 자매님께 보이셨는데 그는 이 미소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기를 기뻐하는 모습 또한 감탄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눔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는 진정한 나눔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두가지일을 통하여 저는 많은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명 한명을 축복해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제일 좋은 것을 이웃과 나누기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메모리얼데이 체육대회가 끝난 후 모두들 많이 피로하고 몸에도 많은 먼지가 묻었지만 집에 가는 길은 즐겁고 유쾌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실망시키지만 또 매번 용서받는 죄인인 저는 집의 따스함과 행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많은 형제 자매들이 저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진정한 용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세가 다가옵니다. 우리는 더 빨리 행동해야 합니다. 소방대원처럼 더 많은 사람들을 지옥의 불속에서 건져와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의 우리의 마음은 평온하며 믿음이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므로 우리는 메모리얼데이에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의 사랑과 평온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교인 한마음 축제

루디아
유년부
바 울
바 울
아굴라

선교를 향한 따뜻한 동행

정해성 집사

10시30분 출발 예정이던 아시아나 OZ222 편이 인천공항사정으로 출발이 지연된다. 어머니 팔순을 맞아 모인 가족모임을 마치고 뉴욕으로 돌아가는 길, 언제나 그렇듯 뉴욕을 돌아오는 길이 '컴백홈'이 되는 것은 낯설다.

18분 지연되어 뉴욕에 도착, 휠체어를 타고 모셔온 처외할머니 덕(?)에 가장 빠르게 입국수속 완료. '우훗! 교회에 빨리 갈 수 있겠다', 상쾌지수 급상승. 그러나… 가장 먼저 나와 수화물을 기다리지만, 나중에 나온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입국 게이트를 빠져나갈 즈음까지 내 가방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호- 통재라. 거의 한 시간이 지나서야 발견한 나의 가방은 1등석 컨베이어벨트에서 돌고 있다. 몸은 일반석인데, 수화물은 일등석이었네.

한 달 전 아가페 편집부로부터 선교바자회 관련 기사를 청탁받았다. 귀국일이 바자회 행사일이라 사양했지만, 가능한 대로 써 달라 하셨다. 공항을 빠져나와 황급히 옷만 갈아입고 교회에 도착하니 벌써 2시가 가깝다. 겨우 두 번째 경험하는 퀸장에서의 바자회이지만 분위기는 뜨겁다. 주차장에서 바자회로 안내하는 첫 관문은 청년부의 '하이패숀 매장' 기도하며 인쇄했다는 요한복음 3:16 성구 셔츠와 '사랑이 빛나는 밤에' 로고 수제 백이다. 면티 옷감이 보들보들하다. 프린트 품질도 수준급. 청년들의 꼼꼼한 준비가 느껴진다. 오른쪽으로 박성권 전도사님이 잡화를 팔고 있다. 한 고객이 가방 하나를 들고 꼼꼼히 살피며 이것저것 묻는다. 약간 어눌한 듯 하면서도 친절하게 응대하는 전도사님, 장사꾼 소질은 없으신 것 같다. 그 옆으로 신기만 집사님은 청년들을 상대로 액서서리 장사에 한창이다. 그 뒤편으로, 뚜두두두… 카메라 렌즈에 강렬한 기운이 감지된다. 왕잠자리 검정 선글라스에 검정 나시 티, 검정 바지… 블랙으로 패션 컨셉을 설정하신 포스 작렬하는 한 여성 고객이 옷가지 하나하나를 들어 면밀히 점검한다. 아침부터 자리 잡고 온종일 명품 옷만 골라내는 신출귀몰의 명품 킬러(?)란다. 잠시 넉 놓고 킬러의 저격솜씨를 보니 옷을 낚아채고 상표 확인 후 옷 상태를 체크, 챙기고 던져 버리는 솜씨가 재빠른 프로의 경지다.

단일 품목으로 바자회에 승부수를 던진 베드로 선교회와 아굴라 선교회가 같이 꽈리를 틀었다. 역시 중년의 남자는 단순한가, 복잡한 거 싫고 번거로운 거 싫고… 페이퍼 타월과 양파로 승부를 걸었다. 고객보다 선교회 회원이 더 많이 오간다. 양파 한 망에 4불이라니… 남는 게 있기는 한건지.

루디아선교회의 튀김매장이다. 양정오 집사님이 오징어 튀김을 만들고 있다. 퀸장의 새내기였던 지난해, 맞은편에서 홀로 컵라면을 팔던 내게 튀김 한 접시를 가져다주신 김명희 권사님의 따듯한 손길이 행복한 추억으로 떠오른다. 제일 먼저 튀김 한 접시를 주문한다. 정영숙 권사님이 수북이 넘치도록 쌓아 주신다. 사랑이 바삭바삭 식감도 좋다. 베드로 회원들과 나눠 먹는다.

디모데/에스더 선교회의 가방 매장. 가지런히 예쁘고 패셔너블한 가방들이 진열되어 있다. 몇 개 집어 살펴보지만 오! 나의 무지함이여. 그 옆에선 고등부 노천카페가 한창이다. 진한 에스프레소 한 잔 생각났지만, 시차적응 안된 몽롱한 상태라 조심조심. 커피는 사양하고 패스.

본당 출입구에 자리 잡은 모세 선교회 매장. 값싸고 신선한 딸기와 더불어 눈길을 사로잡는 소파 테이블과 독서대. 목공예가 취미인 김용생 장로님의 수제품이다. 집 안 가구들을 직접 만드신다는 장로님의 솜씨가 매끄러운 에나멜 페인팅 마감작업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성경읽기 딱 좋은 독서대가 20불. 비싼 재료비에 개당 몇 시간의 공임을 감안하며 완전 실비 가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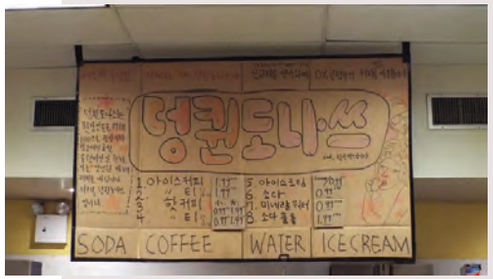
여호수아 선교회의 잡화 매장. 판매하는 품목도 단연 압도적으로 다양하다. 김, 칫솔, 한방 샴푸와 각종 견과류까지. 송창호 집사님이 팩당 5불짜리 견과류 세 팩을 10불에 주신다. 정철호 집사님께서 예수님 모습이 담긴 사진 액자까지 덤으로 주신다. 횡재다.

주변을 배회하던 인도인 가정으로 보이는 가족들이 여호수아 선교회 매장 앞에 놓은 유모차에 눈길을 준다. 이내 흥정에 들어간다. 이왕수 집사님이 제시한 가격은 80불, 고객은 25불로 후려친다. 터무니없는 가격흥정. 결론은 손님 승이다. 원가 600불짜리 유모차라신다. 아무리 중고품이라지만, 깨끗하고 상태도 아주 좋은 유모차가 단돈 25불이라니. 오전에는 700불짜리를 60불에 주셨단다. 이왕수 집사님, 마음이 너무 좋으시다. 유모차를 횡재한 이 가족은 유모차를 쇼핑카트 삼아 한 시간 가량 더 성공적인 쇼핑을 즐기다 사라졌다.

모세와 여호수아 사이에 자리 잡은 바울 선교회 매장은 샴푸 린스 등 미용세제용품으로 가득하다. 팽종익 집사가 세트 품목을 권한다. 헉! 30불이다. 단일 매장 최고액 지출이다. 제조사가

명품 유모차가 단돈 25불에!

청년들이 파는 떡볶이^^ 사세요!



우동 주문을 받으시나요?

성경을 읽는 분들에게 이건 필수!

제철나물을 가득담은 비빔밥과
마르다회원들

얼마나 모아졌어요 *^^*

어딘지, 남성용인지 여성용인지 설명도 없다. 믿고 사는 매장이다. 보드라운 세정 타월 다섯개를 비닐 백에 담아 덤으로 준다. 아- 역시 덤에는 약한 나의 쇼핑 매너.
양파 한 망과 견과류 팩, 세정용품 세트를 차에 고이 모셔놓고 드디어 본당으로 입성. 주차장에서 본당 입성까지 30여분이 걸렸다.
한가로운 본당 로비에는 고부영 전도사님이 서양란은 20불에 판매중이다. 퀸장의 화목한 분위기처럼 서양란들이 제각기 기품을 뽐내며 손님을 유혹하지만, 정작 관심 있게 보는 이는 어린 학생 한 명 뿐. 고전도사님이 난 하나를 선물로 주시겠단다. 마음에 드는 걸 고르라신다. 고단수 판매방법이신가? 어찌 바자회 품목을 공짜로 얻으리오. 기분 좋게 50% 대폭 할인을 받아 10불에 퀸장의 색, 버건디 컬러의 꽃을 피운 난 하나를 골랐다.

배가 고프다. 낮과 밤이 하루 만에 바뀌고,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는 와중에도 헝그리 알람 타이머는 정확하게 울린다. 브리스가선교회의 우동 한 그릇과 마리아 선교회의 김밥 한 줄 - 정신없이 먹어서 무슨 김밥이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 - 그리고 청년부에서 산 떡볶이와 오뎅으로 배를 채운다.
마리아선교회만 안다. 바자회 전날 얼마나 힘든 준비과정을 겪었는지. 암암리에 김밥은 각 선교회가 기피하는 바자회 품목 1위란다. 다른 품목과 달리 김밥은 모든 재료 준비를 전날 준비해야 하고, 더운 날씨에 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솔선수범의 준비성을 절대 피해야 하는 품목이기 때문이다. 마리아선교회 여러분, 김밥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전날 고생 많으셨다고 전해 들었는데… 그 안에 행복하고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이었다는 전언도 있었습니다.
이명옥 전도사님이 '브리스가 우동'의 국물 맛을 자랑하신다. 맨해튼에서 일하시는 김덕중 집사님의 비법과 비싼(?) 간장, 그리고 안나선교회에서 특별히 제공받은 멸치로 국물 맛을 내셨다며 최고의 우동임을 자부하신다. 그 뒤 주방에서 봉사하던 청년1부의 배성실 청년도 '맛대 맛'으로 나선다. 패션 아티스트로 올해 졸업 후 7월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는 청년은 청년부의 오뎅 국물을 정성껏 만들었는데, 교회 곳곳에 도배한 '오뎅' 포스터가 급(?)이 다름을 보여준다.

형형색색의 갖은 나물로 먹음직스러운 비빔밥, 마르다 선교회의 메뉴이다. 겹겹이 쌓인 비빔밥은 판매 1순위? 역시 세계적인 한국의 대표음식이다. 사라 선교회의 김치류, 장류. 다비다 선교회의 각종 전류, 한나선교회의 감자전과 부꾸미… 지하 친교실은 먹거리 천국이다.
여기서 잠깐, 너무 늦은 시간에 현장에 도착, 분위기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각 선교회와 기관들이 정성껏 준비하고 열심을 다한 바자회 모습을 일일이 담지 못해 죄송하다. 퀸장 가족 1년 새내기의 한계와 빠듯한 취재시간으로 인해 지극히 제한적인 내용 밖에 담지 못한다.
눈길은 끈 두 가지 더. 아이디어 빵빵한(?) 청년부의 카페 간판 '덩킨도나쓰'. 100% 지하 창고에서 훔친(?) 콜롬비안 산 싸구려 커피라고 했지만, 커피 맛은 스타벅스 빰치고 던킨 도너츠 엉덩이까지 후려칠 맛. 결국 커피 한 잔으로 몽롱했던 정신을 떨어낸다. 제로 퍼센트의 공정무역, 즉 훔쳐온 커피로 만든, 선교만을 생각한 '기본에 충실한 지혜로운 커피' 맛이었다. 신선한 아이디어와 젊음으로 무장한 청년부는 냉커피, 떡볶이, 아이스크림 판매로 총 5,085불의 판매액을 기록, 기관별 순위 1위를 차지했다.

장영춘 원로목사님과 장미은 사모님께서 내놓으신 기부물품으로 꾸며진 특설 매장. 원로목사님께서 선물로 받으신 다양한 디자인의 실크 넥타이와 남성용 코치 명품 가방, 시원한 모시 내의 등이 진열대에 올라 있다. 판매를 담당한 조제인 집사님의 말로는 상당한 매출을 올렸다고 한다. 끝으로 보이는 신라 왕관이 눈에 띈다. 50불이란 파격적인 가격으로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금빛 나는 왕관의 재질이 14K 라고 하셨다. 헉! 14K라면 도금된 왕관이라 할지라도 파격적인 가격 아닌가?
매서운 바람으로 가장 애를 먹은 중국어 예배부. 수제 만두를 50개 20불, 칼바람이 부는 가운데 긴 머리를 바람에 휘날리며 튀김만두를 5불에 판매했다. 그 뒤 한편에서 장미꽃을 포장하고 있던 황혜옥 전도사님께 물었다. '전도사님, 장미는 얼마예요?' '이건 판매용이 아니고 내일 등록하시는 새가족에게 드릴 장미입니다'. 중국어예배부의 바자회 챙기랴, 다음날 새가족 챙기랴 손길이 분주하다.
마지막으로 찾은 찬양대 연습실. 텅텅 비어있는 줄 알았는데, 악보 보관실 앞에 테이블 하나 놓고 회계 정산에 열심인 함미희 전도사님의 손길이 분주하다. 결산중이라 앞에 놓은 우동은 뒷전이다. 수북이 쌓여가는 수익금이 하나님나라 확장이라는 대 사명 앞에 귀히 쓰일 것을 생각하면 피곤을 느낄 틈도 없어 보인다.
전교인이 한 마음으로 모여 성황을 이룬 2015년 선교바자회, '역시 퀸장'이란 표현으로 너무 부족한가? 바자회를 둘러보는 발길이 행복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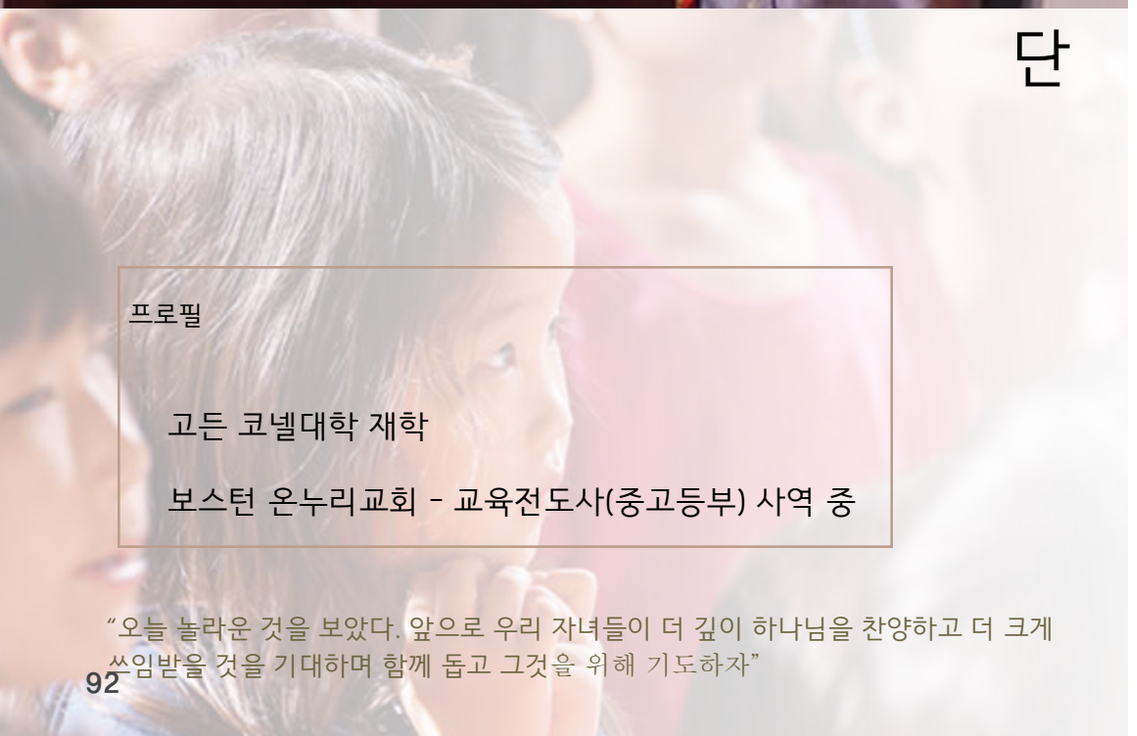
어린이 부흥 집회

"LIVE FOR JESUS!"

아버지는 " Jesus First! , Only Jesus! " 의 삶을 사셨고,
그런 아버지의 삶을 보고 자란 것이 가장 큰 교육 이였습니다.

조나단

Jonathan Kim JDS



프로필

고든 코넬대학 재학

보스턴 온누리교회 - 교육전도사(중고등부) 사역 중

"오늘 놀라운 것을 보았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더 깊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크게 쓰임받을 것을 기대하며 함께 돕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자"

어린이 부흥 집회가 6월 5일과 6일 저녁 7시 30분에 본당에서 진행되었다.
두 해에 걸쳐 하랑예찬 어린이 찬양집회를 연 것에 이어 올해 새로 창단한 어린이 합창단 G2G(Glory to God)가 함께 하며 강사로 조나단 김전도사를 모시고 부흥집회를 개최한 것이다.
조나단 김 전도사는 금요일 저녁에는 마태복음 9장 1-13 절 말씀 "I once was lost" , 토요일 저녁에는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 "But now I am found" 라는 제목으로 집회에 참가한 다양한 연령층의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추며 다채로운 방법으로 말씀을 전함으로써 아이들의 호응을 끌어내어 아이들의 시선과 마음을 한 순간도 놓치지 않았다.
마태복음 9장의 말씀으로 예수님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음을 알려주었고 세리인

마태를 등장시켜 우리 모두가 병든 자임을 알게 하였으며 병든 사람이 스스로 의사를 찾아가서 아픈 곳을 이야기해야만 고침을 받을 수 있듯이 우리도 죄로 인해 아프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찾아가야지만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였다.
토요일 집회에서는 누가복음 15장 말씀으로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으시고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알려주며 어리석은 양과 같이 죄의 길로, 사망의 절벽으로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을 비유로 말해주었다.

어린이 부흥 집회

또한 마술과 같은 퍼포먼스를 통해 죄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가는 길에 생긴 매듭을 보여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알려주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다시 그 매듭, 곧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에게로 갈 수 있게 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이틀에 걸쳐 아이들과 함께 호흡하며 복음의 핵심을 선포한 조나단 김 전도사는 토요일 설교 후에 "이제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나오라" 고 말하였고 수많은 아이들이 강대상 앞으로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결단의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조나단 김 전도사는 김성국 담임목사를 비롯한 모든 교역자들에게 이들을 위해 축복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온 교회가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하고, 가슴에 품어 안으며 축복기도 해주었다.
같은 시간 부모님들도 앉은 자리에서 아이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축복하는 귀한 시간들이 이어졌다.
축복기도가 끝나자 조나단 김 전도사는 아이들과 같이 강대상 바닥에 둘러앉은 채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 모습은 마치 갈릴리 마을에서 제자들과 둘러앉은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시켰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조나단 김 전도사와 어린 제자들의 모습은 아름다운 감동을 주었다
이날 조나단 김 전도사는 집회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그곳에 모인 부모님들에게 단 한 가지 당부의 말을 하였다.
부흥집회를 열기 위해 많은 노력과 정성을 기울였음에 감사하며 아이들이 바디워십과 찬양을 준비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 연습을 하였을지 가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신도 어릴 적 성가대도 하였고 교회 교육부서 행사에 열심히 참여하며 부모님과 새벽기도를 다녔지만 정작 자신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모님의 단 한 가지 참된 교육으로 인한 것임을 말하였다.

아버지는 "Jesus First!, Only Jesus!" 의 삶을 사셨고, 그런 아버지의 삶을 보고 자란 것이 가장 큰 교육 이였음을 말하며 그 어떠한 교육보다도 하나님의 경외하는 삶의 모습을 그대로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부탁한다는 당부로 말씀을 마쳤다.
이에 김성국 목사는 "오늘 놀라운 것을 보았다. 이틀간 아이들과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에 감사하며,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더 깊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크게 쓰임 받을 것을 기대하며 함께 돕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자" 라고 말씀하며 축도함으로 집회를 마쳤다.
집회를 준비한 여러 스텝들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어린이 바디워쉽팀 "하랑예찬" 과 어린이 합창단 "G2G" 의 대원들에게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을 수 없었다.
하랑예찬 1기와 2기 대원들은 세 번째를 맞는 집회를 위해 수개월간의 어린이 제자훈련을 통해 성경공부와 말씀암송, 기도훈련 등을 병행하며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으며 마음을 다한 바디워쉽과 찬양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2015년 연초에 교육부서를 통해 창단되어 24명의 유년, 초등부 학생들로 구성된 어린

이 합창단 "G2G" 는 첫 무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목소리와 화음을 선보였으며 대원 모두가 기쁨으로 찬양하는 모습은 그 모습 그대로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었다.
그 외에 집회를 위해 함께한 여러 보이지 않은 수고와 기도의 후원으로 인해 성공적인 어린이 부흥집회를 이끌어 내어 하나님께도 영광을 올려드렸다.
이틀간의 집회는 참석한 모든 이에게 한없는 감동과 기대를 선물로 주었고 차세대를 향한 비전과 소명을 더욱 분명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근래에 쉽게 찾아 볼 수 없는 "어린이 부흥집회" 라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와 소명을 준 복된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어린이 부흥집회가 계속 되어져서 본 교회는 물론 뉴욕과 뉴저지 지역까지, 더 나아가 미동부지역의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차세대 크리스천 자녀들에게 더 큰 영적성장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집회로 발전, 성장해 나가기를 소원한다.

컬럼

김재형 목사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 시리라 (눅 12:31)

예수님의 몸 된 교회와 성도는 오늘도 멈추지 않고

세상 속에서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믿음의 발걸음

은혜의 발걸음,

복의 발걸음 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 됨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두 부자가 있는데, 둘의 이익을 둘러싼 경쟁이 너무 심했다고 합니다. 워낙 심하게 매일 다투고 양보하지 않고, 싸우기만 하기를 어언 1년이 넘도록 하게 되자, 그 나라의 왕이 이 싸움을 그쳐야 되겠다고 싶어서 자기의 신하를 보내서 두 명 중 한 부자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도록 하였습니다. 내가 너의 바라는 것을 다 들어 줄 테니 이제 싸움을 그쳐라.

그런데 그 조건으로 좀 이상한 제안을 하였습니다. 한 가지 소원을 들어 줄 텐데, 그것은 바로 그가 원하는 어떤 것이라도 한 가지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그가 무엇을 바라든, 그와 경쟁하는 다른 사람은 그가 원했던 것을 두 배로 가지게 될 것이라는 제안입니다.

왜 이런 조건을 달았는지 모르지만, 절대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만큼 가질 수 있고, 상대방은 단지 나보다 두 배로 가지게 된다는 조건입니다. 그저 다른 사람을 생각지 않고,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면 됩니다. 이 조건을 듣자 이 부자는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하면서, 계속 고민에 고민을 하다가 한참이 지나서야 왕에게 소원을 말합니다.

제 소원은 제 한 쪽 눈을 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음흉한 눈빛으로 왕을 쳐다보며 말합니다. 말씀하신 약속은 꼭 지키셔야 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상대방은 그 두 배를 가지게 하느니 차라리 자신의 소중한 눈 하나를 잃고 다른 사람은 두 눈을 다 잃어 그가 더 이상 장사를 할 수 없게 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으시나요? 이야기가 거의 공포영화 수준으로 참 살벌함에도 불구하고, 왠지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이기 보다는,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과 너무 흡사하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서로 싸우고 다투는 모습들, 경쟁과 욕심에 눈이 가려 정말로 소중한 것, 정말로 아름다운 것들을 보지 못하고, 정말로 값진 것들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들을 잃거나 놓쳐버리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에서도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약속을 믿지 않고, 오히려 의심하여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어버린 아담의 마음. 자신의 동생의 제사만 받아졌다고 하면서 동생을 죽였던 아벨의 마음. 모두 다 경쟁과 욕심에 눈이 가려 정말로 소중한 것들을 다 잃고만 사람들의 이야기라 하겠습니다.

이런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을 닮아 희생과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함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에는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서로의 생각과 의견 이득이 되는 것들을 좇지 않고,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던 모습(행4:32)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가 함께 "그 나라와 그의 의"(눅12:31)를 구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적은 무리이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나라를 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 때까지 살펴보시며 우리의 필요한 것을 더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모든 성도를 남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몸과 같이 챙기고 사랑했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행4:32)

라고 말씀합니다. 즉,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면 싸우지 않습니다. 아끼려고 땅 속에 숨겨 두지 않습니다. 아끼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재물을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할 것입니다. (눅 16:9)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 말씀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라고 말씀하며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그 중에 가난 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메시지 앞에 받은 은혜는 우리의 마음이 찔리게 하고 우리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합니다. 자신을 희생함으로 다른 성도를 살리는, 세상의 보기에는 신기한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몸 된 교회와 성도는 오늘도 멈추지 않고 세상 속에서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이 믿음의 발걸음, 은혜의 발걸음, 회복의 발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모두 다 함께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오인수 목사

단 두 명의 유권자

제가 퀸즈장로교회에 온지 어느덧 4년이 되갑니다. 이 말은 곧 제가 결혼한 지 4년이 되간다는 말이지요.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결혼을 하며 많은 사랑의 빚을 지고 바로 우리 교회를 섬기게 되었거든요. 비록 4년이란 짧은 결혼 생활을 했지만, 결혼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글을 나누려 합니다. 뉴욕 맨해튼에 있는 리디머 장로교회의 Tim Keller 목사님께서 쓰신 "결혼을 말하다(The Meaning of Marriage)"에서 제가 은혜 받고 도전받은 부분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결혼 생활은 하루하루가 크고 작은 결정의 연속입니다. 사소한 일에 관련된 결정뿐만 아니라 복잡한 사안들에 대한 결정도 늘 이어지지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모든 결정을 두 명이서 내린다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에는 단 두 명의 유권자만 있지요. 둘의 의견이 다르면, 상황이 쉽지 않게 흘러갑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결정하시겠어요?

첫 번째로, 남편의 권위는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내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을 보면 섬기는 리더는 배우자에게 기쁨을 주고 상대방을 세우기 위해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희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당신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롬 15:2-3). 머리가 된다는 것은 남편 혼자 모든 결정을 내린다는 의미가 아니고, 다른 식구들의 의견과 상관없이 제멋대로 결정한다는 뜻도 더욱 아닙니다.

두 번째로, 아내는 남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활용해서 권한을 행사하는 존재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가장 믿을만한 친구이자 상담자가 되어야 합니다. 의견이 다른 것이 있더라도 남편을 품어야 하고 온전함을 향해 완성 되가는 과정에서 많은 양보를 하고 화해를 이끌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고 매사에 의견을 교환해야 합니다. 부부가 잘 다듬어지고, 풍요롭게 되며, 서로 존중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단장하고(벧전 3:3-5) 언쟁할 수 있어야 합니다(잠 27:17). 두 사람의 합의점을 찾아야 할 때 아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와 자원을 그 문제에 쏟아 부어야 하며,

남편은 최선을 다해 아내의 도움을 수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아내는 남편에게 무조건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가 그 누구더라도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행 5:29). 만약 남편이 마약을 팔거나 특하면 가족들을 학대하는 경우처럼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을 한다면 절대로 순종하거나 도움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에게 주먹을 휘두른다면, 마음으로는 사랑하고 용서하되 경찰에 전화를 거는 것이 배우자로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서슴없이 잘못을 저지르게 내버려 두는 것은 절대로 친절이나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네 번째로, 남편은 아내와 가족을 돌보는 목적으로만 '머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순종했듯이 우리도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합니다(고전 11:3). 이것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아내가 스스로에게, 또는 가족들에게 매우 좋지 않은 선택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 남편은 머리로서 배우자를 제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남편의 주도권이 어떤 색깔의 자동차를 살지, 누가 리모컨을 집어 올지, 아이를 데리고 놀아줄지, 아내가 부탁하는 대로 집에서 꼬마들을 보살필지 같은 사안에 남편의 고집을 피우는데 쓰여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이 남편과 아내 모두가 가장 헷갈려 하는 부분입니다. 섬기는 리더의 역할을 모르거나 따를 마음이 없는 남편들은 단지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믿지요. 또 아내들은 자신의 지위가 낮아질 것 같은 가르침은 무조건 받아들이려 하지 않지요.

하지만 '단 두 명의 유권자'만 존재하는 결혼 생활에서 어떻게 양보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십중팔구는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을 주려고 노력할 때 그 매듭이 풀릴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머리됨을 존중하고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다 보면 건전하고 성경적인 기초가 다져져서 서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이 드물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좀처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는 누군가 결정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떠맡으면 됩니다. 여기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머리'가 나서야 할 자리이지요. 그런 일이 생기면 남편과 아내 모두 자신의 역할에 '순종해야'합니다.

간혹 똑똑한 남편이 그 역할을 피하기도 하고, 똑똑한 아내는 기꺼이 맡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보면 상황이 뒤죽박죽 엉클어지기도 하지요. 이때는 예수님께서 자원해서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셨던 기도를 우리 가정에 가지고 올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팀켈러 목사님의 한 예화입니다.

1980년대 후반, 우리 가족은 필라델피아 외곽의 제법 괜찮은 동네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대학에서 정교수로 일하던 남편이 불쑥 뉴욕시로 집을 옮기고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해 왔다. 남편은 새로운 아이디어에 잔뜩 들떴지만 나로서는 영 내키지가 않았다.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세 아들을 맨해튼에서 키운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했다. 뿐만 아니라 맨해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처지라 자칫 너무 쉽게 일을 벌였다가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하는 일상이 보장되지 않으리라는 건 불 보듯 뻔했다. 온 가족이 온 종일 매달려도 모자랄 판이었다.

남편이 부르심에 따르고 싶어 하는 것은 분명했지만 나는 그 것이 올바른 선택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내가 깊은 회의감을 전하자 남편은 이렇게 대답했다.
당신이 가기 싫다면 안 가도 돼요. 난 펄쩍 뛰었다. 아뇨 그건 싫어요! 나한테 결정을 미루지 말아요! 그건 직무 유기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리더십을 행사해서 결단을 내리세요. 막힌 것을 뚫는 것이 가장의 일이에요. 기쁜 마음으로 당신을 지원하기로 하나님과 씨름하는 건 내 몫이고요.

팀은 뉴욕시에 가서 리디머 장로교회를 개척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아이들을 포함해 온 가족들은 그때가 남편이 가장 사나이다웠던 때라고 기억한다.
정말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뚜렷이 감지했기 때문이다. 우리 부부는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지만 둘 다 서로의 역할에 순종했고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였다.

때때로 왜 여자가 이렇게까지 순종해야 하는지 궁금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자들은 결단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전통주의적인 답변은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아내가 남편보다 더 단호할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여성들에게 순종의 자리를 맡기신 것일까요? 다음의 질문이 그 물음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는 모든 권세를 성부께 맡기신 것일까요?"

우리로선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자의 우유부단함이 아니라 위대함을 드러낼 뿐입니다. 여성들은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을 따르도록 부름 받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합당한 권위를 가지는 일 또한 그것을 맡기는 것 못지않게 어려운 일인 것을 말입니다.

가정에 단 두 명의 유권자만 있지만 그 두 명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 놀라운 균형과 순종의 기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슴 찡한 심방

이양미 전도사

3년 전 교회 바자회 때 쓰러져 의식을 잃고 식물인간이
되셔서 루즈벨트 아일랜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유인순
할머니는 내가 만났던 그분이 아니었다.
내가 아는 유인순 할머니는
마른 체구에 주름진 얼굴의 할머니였는데
병원에서 만난 유인순 할머니는
통통하게 살찌고 얼굴에 주름이 하나도 없는
뚱뚱한 아줌마로 변신해 있었다.
움직이지 못하고 의식도 없으셔서
영양제만 공급받고 계시니 몸이 변한 것이다.
남편 되시는 유춘석 할아버지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곳에 오셔서 아니 출근 하셔서 할머니를 돌보신다고 하셨다.
"할아버지! 매일 왜 그렇게 오세요?" 하고 물었더니
보호자가 없으면 환자를 제대로 돌봐주지 않아서란다.
"힘들지 않으세요?"– "나이가 있어서 쬐금 힘이야 들지"
"안 귀찮으세요?" – "아니 하나도 안 귀찮아"
차가 있으신 것도 아니고 젊으신 것도 아니고
오고가는 시간만 버스와 전철을 타고 4~5시간 인데.....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돈 잘 벌을 때는 우리 마누라 잘 나갔드랬는데
사업 망하고 미국으로 도망오고 난후는 나 땜시 고생만 많이 하다가
저 꼴이 되었다고 못내 미안해 하셨다.

할머니에 대한 변함없는 할아버지의 애틋한 사랑이 가슴 뭉클하게
하는 심방이었다.

"우리아가, 부모자녀" 사행시

기가이

우: 우연히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고 가이라는 예쁜 딸을 낳아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리: 이런 것이 진정한 행복인 것 같습니다.
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함께입니다.
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김민서

우: 우리의 진심어린 기도를 들어주셔서
리: 이렇게 예쁜 아가를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 아름답고 건강한 주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 가까이에서 지켜주세요.

임클로이

우: 우리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아기 클로이야!
리: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
아: 아름다운 비전을 가슴에 품고
가: 가장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나가길 기도한다.

강우현

우: 우리 곁에 같이 있어서 항상 행복하고 예쁜 아이를
리: 이젠 말도 제법 잘하고 개구쟁이인 수영이, 우현이
아: 아빠랑 엄마랑
가: 가정이라는 행복함속에서 건강하게 자라다오.

김세린

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모: 모든 이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자: 자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녀: 여기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크리스틴

부: 부모님의 사랑 다 깨닫기도 전에 한 남자의 아내,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모: "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녀를 기도로 키우셨다" 는 엄마의 말씀이

자: 자녀를 기르며 많이 생각나곤 합니다.
녀: 여태껏 받은 부모님의 사랑 어떻게 다 갚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부모님,
그리고 사랑합니다.

Ryan Ai

부: 부모님께 효도하고
모: 모나지 않은 성격으로
자: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녀: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최유아

우: 우리에게 부모라는 수식어를 달게 해주고 엄마라는 이름을 갖게 해준 우리 아가들
리: 이 모든 것은 베푸시고 하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아: 아름다운 이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것에 오늘도 감사드리며
가: 가족과 함께 좋은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며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채노아

부: 부족함이 없으신
모: 모든 이름보다 더 뛰어나신 그 이름,
자: 자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이름,
녀: 여호와께 오늘도 찬양하며 경배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물 튼튼이

배강원 집사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 하에 제 9회 태아교실에 참석하게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주신 퀸즈장로교회 김성국 담임목사님, 이명옥 전도사님, 조경옥 권사님 외 선생님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첫째 혜원이를 가졌을 때는 태아교실이 있는 줄은 알았지만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는 못해서 태아교실을 수료하지 못하였는데 이번 둘째는 우연히 이명옥 전도사님과 조경옥 권사님께서 저희 부부가 임신한 사실을 아시고 깊은 관심으로 태아교실로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훌륭한 수업을 참석하고 수료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부부는 둘 다 풀타임으로 저녁까지 일을 하다 보니 퇴근하여 수업을 참석하기엔 태아교실 시작 시간과 맞지 않고 교회와 집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시간적인 문제로 이번에도 그냥 하지 못하겠다 하고 지나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늦어도 괜찮다고 격려해 주시고 기다려 주신 전도사님, 권사님들 덕분에 늦은 시간이나마 첫 번째 태아교실을 참석할 수 있게 되었고 첫날 수업을 들은 순간 저희 부부는“이렇게 좋은 수업과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할 정도로 너무 많은 은혜와 감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태아교실이 열릴 때까지 기대되는 마음으로 일주일을 기다리게 할 만큼 뜻 깊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준비한 손길들과 정성은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감동이었습니다.
수업을 들으면서 저녁식사를 할 수 있도록 식사도 테이블까지 직접 가져다주시고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데리고 온 첫째까지 봐 주시며 온전히 태아교실 교육에만 전념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첫째는 아무런 육아상식도 없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등바등 키워왔던 것 같았는데 태아교실 수업을 듣고 나서는 첫째 혜원이에게 미안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영적으로 아이를 키워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아이를 한 가정에 주심으로써 잘 맡아 말씀 속에서 키워나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써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그런 아이로 성장하게 하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인데 요즘 사람들은 그저 똑똑한 아이 사회에서 인정받는 아이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목표로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태아교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영적으로 아이를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아기를 키우는 방법, 서툰 초보 엄마 아빠를 위해 기본적인 육아 상식까지 모두 제공해줍니다. 임산부 체조수업 시간을 통해서 엄마들의 몸을 더욱 강건하게 만들어주고 아빠들은 그 시간에 미역국 만들기와 디저트 만들기 수업을 진행하면서 아내들에게 사랑을 전달하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사실 첫째와 이번 둘째사이에 저희는 두 번이라는 유산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생긴 아기인 튼튼이를 가졌을 때도 마냥 기뻐하지 못하고 한 주 한 주 걱정과 근심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급기야는 8주 때 심한 하혈을 하여 곧장 병원으로 갔는데 하혈양이 너무 많아서 의사 선생님 조차도 이 정도면 아기가 잘못 되었겠다고 판단을 하시고 바로 저희에게 수술동의서를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동의서 마지막 칸에 사인을 하기가 머뭇거려졌고 하나님께서 아직은 아니라는 신호를 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동의서 사인만 빼고 나머지만 작성을 하고 마지막 초음파를 해 보았는데 둘째 튼튼이의 심장이 여전히 쿵쾅쿵쾅 뛰고 있었습니다. 정말 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기적을 보여주신 하나님! 저희 가족을 통해서 명백히 하나님만이 온전히 생명주관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의사선생님도 하혈의 원인을 모른다고 하였고 여러 번 검사를 해도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이 이 세상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후에도 한 달 반 이상 지속적으로 출혈이 있었지만 우리의 둘째 아기는 벌써 27주가 되어 태명처럼 아주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희 부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리며 출산을 앞둔 모든 부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으로...

이승재 집사

안녕하세요. 저는 믿음2반 이하리 엄마 이승재 집사입니다.
주일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차안은 저희 첫째 하음이와 하리의 재잘거림으로 가득합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9시부터 저녁5시까지 교회에 있었으니 피곤할 법도 한데 차안에서는 그날 배웠던 말씀 리핏하기로 아주 바쁩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월요일 저녁이나 화요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아이들과 함께 주일날 배웠던 말씀을 나누고 느낀 점을 간단히 얘기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저녁 화요일 저녁 하다 보니 아이들이 잊어버리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짧은 시간을 활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둘이 서로 말하려고 하다가 싸움이 나기도 했었지만 이제는 이번 주는 오빠 먼저 다음 주는 하리 먼저 이런 식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안 아이들의 배운 말씀의 재잘거림으로 인해 저도 은혜 받을 때가 아주 많습니다. 주일 바로 리뷰를 하다 보니 아이들이 말씀을 더 잘 기억하게 되는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월요일 저녁엔 하리가 주섬주섬 그 주에 했던 크래프트를 꺼내 그것으로 리뷰를 해보기도 한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땐 종려나무를 같이 흔들어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땐 십자가를 만들어보고 부활절엔 동굴을 열렸을 때 계시지 않았던 예수님을 얘기하고 싶었는지 냉장고 문을 열면서 동굴이라고 열렸는데 예수님이 안계셨다고 배웠던 말씀을 기억하고 리뷰 하는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하리가 기억을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화요일이면 어김없이 전도사님께서 보내주시는 말씀 정리와 기도제목 그것으로 아~ 이런 것을 했구나 하며 하리에게 얘기해주면 신기하게 기억할 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은 오병이어를 배우고 그것이 너무 신기했는지 골드피쉬를 먹다가 집에서 그렇게 해보겠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헌데 전 선생님에게 하리가 얼마나 신기해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크래프트를 했는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리가 원하는 데로 한 번 더 오병이어의 기적체험을 함께 해 보았습니다. 만약 선생님에게 미리 듣지 않았다면 굉장히 당황했겠지요.
또한 유아부에서 배우는 성경암송은 하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부분이였습니다.

사실 처음엔 하리가 집에서 하나도 하질 않아서 잘 모르는 구나 생각했었습니다. 헌데 어느 날 선생님께서 집에서 암송만 연습 하는 것 아니냐고 잘한다고 말씀해 주시길래 하리에게 엄마도 듣고 싶다고 했더니 그날부터 유치원에 가는 차안에서 돌아오는 차안에서 혼자 놀이를 할 때도 자기 전에도 항상 부르는 하리의 찬양곡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그냥 찬양 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말씀으로 찬양을 하니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가 없습니다.
무엇이든 배운대로 한번 해봐야 하는 하리의 성격으로 언젠가 부터는 자기 전 기도할 때 오빠랑 셋이 손잡고 기도를 하자는 것 이였습니다. 유아부 믿음2반에서는 아마 그렇게 기도하나보구나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리가 자기 전 기도 하면서 "가만 아빠도 우리 패밀린데 왜 아빠는 기도 같이 안 해?" 이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하리에게 "하리가 아빠한테 가서 얘기해봐"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아이 아빠는 쑥스럽지만 아이가 하자는 데로 따라와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전 네 가족이 동그랗게 모여 손을 잡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기도하고 엄마가 기도하고 아빠가 마무리 기도하는순간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나님 이곳이 바로 천국 아닌가요. 제가 원하며 기도해왔던 일들이 이렇게 하리를 통하여 일어나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얼마나 외쳤는지 모릅니다.
그 이후 매일은 아니지만 온 가족이 모여 기도하는 날이 참 많아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며 기도를 시작하는 하리의 소리를 들으면 감동 그 차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까? 저 의미가 무엇인진 알까? 어디서든 기도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화요일 전도사님이 보내주시는 기도문을 읽어주고 말해주면 잊지 않고 목사님을 위해 전도사님을 위해 선생님을 위해 친구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짧게나마 기도하는 하리를 보며 태중에 있을 때 하리를 위해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아부에서 유아부로 퀸즈장로교회 교회학교를 4년째 다니고 있는 하리에게 만약 이러한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경험해보지 못 할 일들였을 것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예배를 배우고 찬양을 배우는 하리의 환경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하리로 자랄 수 있는 건 유아부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의 수고가 또 기도가 날마다 있는 줄 압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유아부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가운데 있음을 하리가 예배자로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확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순간 하리의 1년 동안의 유아부 생활을 뒤돌아보며 하나님 안에서 자람에 너무 감사드리고 하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정을 위해 기도해주신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유아부 생활을 더욱 하나님 안에서 지내기를 소망하며 저도 유아부 전도사님과 선생님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는 다짐을 한번 해봅니다.

' 3 '

박인수 집사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께 간증하게 해주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간증을 쓰다 보니 3 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더군요. 수년전 청년 3부 회장으로 섬기며 저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기보다 우리 형님들, 누나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였는데 송은정 자매를 만나 3개월 만에 기적적으로 결혼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회장으로 섬기며 디모데 회원 가정의 축복을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결혼 3년만인 제가 33살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하영이를 갖게 해주셨습니다.그 후 3년 만에 이 간증을 여러분 앞에서 하게 되었습니다.우리 하영이가 이 달에 3살이 되었고 저는 3번째 아버지날을 맞게 되었네요!! 지금은 이렇게 한가정의 3가지 직분인 아버지로, 남편으로, 가장으로 세워 주셨고 너무 귀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우리 퀸즈장로교회 유아부에서 이런 귀한 자리에 세워 주셨습니다.

여러분께 이 시간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중보기도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나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먼저 맡은 직분과 공동체, 교회를 위하여 중보기도할 때 제 삶에 간섭하시고 미처 올려드리지 못한 개인적인 기도제목에도 한없는 축복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임을 체험하였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저는 중보기도를 게을리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교회와 특별히 맡겨주신 요한선교회, 하영이를 맡긴 유아부를 위해 중보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중보기도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저의 가족은 롯과 같이 세상의 복을 따라가는 자가 아닌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며 노력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자라게 해주세요

최애금 성도

2011년 8월에 축복받은 아기가 태어났고 이름을 더할 가(加)와 재주 예(艺), 다재다능하라는 마음에서 "가예"라고 지었어요. 6개월 때부터 영아부에 다녔고 지금 유아부에 다니기까지 가예가 찬양을 너무 좋아하는 것을 보며 제가 지금까지 가예를 위해 한 것들 중에서 가장 잘 했다 싶은 것이 바로 교회에 온 것이예요.

지난 2013년 여름수련회에서 가예는 전교인이 보고 있는 무대에서 음악이 나오자 서슴치 않고 온몸으로 찬양하였어요. 상상치도 못했던 퍼포먼스에 저희는 기쁨과 은혜를 많이 받았고 또한 "아가페"의 표지모델로 자랑스럽게 실렸어요. 또 몇 주 전 성경암송대회에서 "믿음으로 살리라"를 음절과 박자를 너무 잘 맞게 불러서 또 한번 전교인의 관심을 듬뿍 받았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저희가족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가예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뭐든지 한번 시켜보고 싶다는 욕심이 많이 생겨요. 아빠는 항상 "가예는 크면 유명한 아나운서가 될 거야"라는 덕담을 하고 저는 공부를 잘하여 특목고에 가고 골프, 수영 같은 운동도 잘 하고 피아노, 기타 같은 악기도 잘 다뤘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부모라면 자식의 미래에 대한 꿈이 있을 거예요. 저는 어떤 꿈을 꾸는지에 따라 미래가 결정된다고 생각해요. 또한 13년간 모든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꿈과 믿음을 붙잡았던 요셉처럼 저도 부모로서 가예가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는 아이로 자라기를 바래요.

그러나 소망은 그저 자식에 대한 아름다운 꿈일 뿐이고 저희가 갖고 있는 힘과 능력이 제한되어 있어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가예의 미래를 이끌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해요.

믿음의 씨앗이 싹터요

엄마 아빠 손에 이끌려 유치부에 들어서는 아이들은 네다섯 살 입니다. 유아부에서 예배를 혼자 드렸던 아이들도 첨엔 유치부를 낯설어하고 처음 교회에 온 아이들은 엄마와 떨어지기 힘들어합니다. 그럴 땐 많이 울어서 엄마를 따라 도로 가기도 하고, 엄마가 유치부예배를 같이 드리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막대사탕이나 작은 장난감으로 구슬려서 예배를 잘 마칩니다.

놀라운 건 이랬던 아이들이 변해가는 모습입니다. 매일 가는 학교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번 오는 유치부인데 한 주가 가고 두 주가 지나면 어느새 아이들은 달라집니다. 엄마 손에 끌려오며 엉덩이를 한껏 뒤로 빼고 문턱을 넘지 않으려던 녀석이 엄마 손을 멀찌감치 놓고 달려 들어옵니다.

생이별이라도 한 듯 "엄마, 엄마아~" 눈물을 머금고 중얼거리던 녀석도 이젠 선생님을 보고 웃어줍니다. 수줍어 대답도 않던 녀석이 먼저 말도 걸고, 엉덩이를 의자에 붙이고 일어날 생각도 않던 아이가 이젠 얼추 율동도 따라합니다. 목소리도 안 내더니 이젠 앞에 나가 요절 암송도 하고 설교시간에 대답도 합니다. 조금씩 마음을 열고 한 발씩 한 발씩 유치부에 섞여 듭니다. 물론 모든 것이 저절로는 안 됩니다.

이정혜 교사

달라지는 아이들 뒤엔 조그만 발전에도 호들갑을 떨며 좋아해주고 격려해주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있고, 팔을 활짝 열고 맞아주고 이름을 불러주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아이들의 마음에 예배와 찬양을 기뻐하는 믿음의 씨앗을 숨겨두신 하나님, 교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금방 금방 아이를 통해 응답해 주시는 좋은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늘 모든 기도의 응답이 금방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나아지는가 싶더니 다시 움츠러지는 아이도 있고 시간이 지나도 좀처럼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하나하나를 지으시고 천하보다 귀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통해 찬양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또 유치부 아이들을 보며 나를 돌아봅니다. 나는 하나님께 어떤 모습인지, 습관에 따라 그저 예배자리에 와 있는지 아니면 기뻐 달려오듯 신이 나 있는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만큼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지 그냥 제자리인지, 오히려 뒤로 가는 것은 아닌지, 커가는 아이들이 내 눈에 예쁘고 사랑스러운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교사로 자라도록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초등부 교사 1박 2일 수련회

김정선 교사

저희 초등부는 지난 5월 1일 Camp Dewolfe에서 10명의 교사들이 짧지만 은혜가 있었던 1박 2일 수련회를 갖었습니다. 금요일 저녁까지 일하시고 서둘러 발걸음을 교회로 옮겨와 이 은혜의 자리를 채워주신 선생님들 덕분에 그 시간들이 더 빛이 날 수 있었던 기도회였습니다. 예전같이 교회나 어느 선생님댁이 아닌 수련회 장소에서 기도회를 갖는 것은 참으로 오랜만이였고, 또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과 함께 초등부를 위해 기도하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참 기대되고 영적인 부담감도 느끼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아마 이러한 시간을 모든 선생님께서 보내셨으리라 생각되어 더 큰 기대가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약 2시간가량 떨어진 기도회 장소는 너무나 멋진 단독 집이였는데, 바닷가가 끝없이 펼쳐져 있는 아름다운 광경이 우리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마침 도착한 시간 때가 해질녘이였고 저 멀리 바다 속으로 막 떨어져 들어가는 해를 보며 감탄할 수 있는 짧은 찰나도 함께 누렸습니다. 다함께 사진을 찍으며 비록 우리 얼굴은 역광에 까맣게 나왔을지라도 붉은 불덩이가 물속에 녹아 들어가는 그 모습이 잘 나왔음에 한 바탕 웃기도 하며 그저 함께 하는 그 시간들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함께 먹으며 그동안 주일에 바빠서 나누지 못했던 서로의 많은 이야기와 마음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각자의 가족들과 잠시 떨어져 있는 그 시간을 즐기시는 분들도 계셨고(^^) 초등부라는 또 다른 가족과 함께 하는 것에 행복해 하신 분들도 계셨고, 어떤 이유가 있었던 우리는 서로에 대해 더 마음을 열며 가까워지는 소중한 시간을 그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일이 늦게 끝나셔서 8시가 넘은 시간에야 교회에서 출발 하시는 다른 선생님들을 기다렸고, 기도회는 늦은 시각이 되어서야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기도회에 참석하시기 위해 와 주신 선생님들의 초등부를 향한 열정과 사랑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더 반갑고 감사했습니다. 짧은 찬양과 말씀을 시작으로 기도회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그 곳에 충만하기를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초등부를 위해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만져 주시기를,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아니면 아무 것도 아님을 다시금 확인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기도제목들을 생각하며 여기 저기 초등부가 갖고 있던 상처와 아픔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회개하며 주님의 마음을 같이 품을 수 있게 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그들의 가정을 지켜 주시기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우리의 마음을 올려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회가 끝난 후 우리는 교제의 시간을 갖으며 서로의 개인 기도제목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한 사람씩 1대 1로 만나면서 기도제목과 각자의 삶을 나누며 서로 위로 받고 더 알아가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정말 귀한 시간 이였습니다. 주어진 7분이라는 시간에 많은 걸 알게 되고 가까워지는 시간과 계기가 되었습니다. 매 주 얼굴만 보고 인사만 잠시 나누고 각자의 방으로 흩어져 아이들과 보내고, 그렇게 짧게 만나다 보면 서로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회로 서로 얼굴을 맞대며 여유로이 기도제목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이렇게 교사들과 초등부 아이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였고, 김성국 목사님, 많은 교역자 분들, 교회 안의 다른 부서들, 또 성도님들을 위해 중보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 안에 하나여야만 하고 어느 한 곳이 아프고 상처가 나면 우리 초등부 역시 아프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감싸주며 기도하는 우리 초등부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선택도 아니고 넓은 아량으로 감싸 안는 것 또한 아닙니다.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초등부의 사역인 동시에 다른 많은 분들의 기도로 우리 초등부가 부흥해 감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등부의 교사 수련회는 1박 2일, 사실 만 하루도 안 되는 무척 짧은 시간 이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신 기쁨과 은혜는 시간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때의 우리의 눈물, 간절함, 주를 바라는 마음을 보시고 우리 초등부, 교회와 성도들에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귀한 자리를 위해 바쁘시지만 애쓰시며 준비해주신 김성민 부장 집사님과, 항상 귀한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을 영의 양식을 채워 주시는 차평화 전도사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성실히 귀한 일들을 담당해 주시는 우리 서기 선생님들, 또 아이들과 부딪히며 가끔 속상할 때도 있지만 그들이 주는 기쁨을 먼저 직접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초등부 선생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모두들 함께 해 주셔서 힘이 나고 위로가 됩니다. 앞으로도 주의 일을 멋지게 담당하는 초등부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음… 김성민 집사님, 다음 기도회는 언제인가요?

하나님이 쓰시는 가정

배성실 청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
바로 우리 가정이 사람의 생각과 상식을 넘어 역사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본다.

아빠와 엄마의 만남부터 남달랐다.
엄마는 엄마만큼의 인생을 더 사신 아빠를 만나게 하셨고,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가정으로 이루게 하셨다. 엄마는 결혼 전 불임판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도 아이를 갖는다는 기대는 접어두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두 딸을 계획하셨다. 아빠와 엄마에게 큰 선물을 안겨 주신 것이다. 어린나이에 사모가 된 엄마는 많은 어려운 일들을 기도하시며 지내시던 어느 날. 그 시절 일본과 대만을 오가시며 선교하시던 아빠에게 사형선고가 내려졌다. 결혼 한지 6년 만의 일이었다.
우리가정과 교회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아빠는 사형선고를 받으시고도 마지막까지 선교를 하셨고, 생애 마지막 일본 선교를 다녀오신 뒤 부르심을 받고 우리 곁을 떠나셨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고 엄마는 사역을 하시기 위해 지방으로 내려가셨고 언니와 난 외가에 맡겨지게 되고 주말가정으로 한동안 살아가게 되었다.

30대 초반에 홀로된 어린 사모가 홀로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였을 것이다. 사역을 하면서 엄마는 눈물로 밤낮을 기도하셨다고 한다.

"하나님, 내가 혼자 된 것도 이해할 수 없고 억울한데…. 당신이 주신 이 자녀들까지 비참하게 키워야 합니까? 난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엄마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셨다.
맨주먹으로 돈 한 푼 없었지만 식당을 열게 해주셨고, 해를 거듭할수록 번성케 하셨다.
물질로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셨고 우린 부족함 없이 지낼 수 있었다.

난 15살 때 캐나다로 유학을 가게 되었고 주위 사람들의 권유로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옮겨 미국에서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연고지 없이 홀로한 15년의 미국생활은 쉽지 않았다. 부족함 없이 유학을 시작했지만 모든 것을 직접 부딪쳐야하는 것들이 십대의 나이엔 쉽지 않았고 인종차별과 비자문제등 여러 가지 시련과 상처가 나의 미국생활의 연속이었다.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과 더 멀어져가고 세상에 더 빠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아닌 돈과 사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

엄마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지만 가족 간의 문제가 생겨나고 이후 엄마의 사업은 점점 어려워져갔고 부족함 없던 나의 미국생활도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엄마, 언니, 나를 뿔뿔이 흩으시고 본격적으로 각 사람을 다루어가시기 시작하신 듯 하다.
가난, 외로움, 단절, 이 모두가 한 번에 찾아왔고 내안에 불신은 점점 더 커져갔다.
하나님보다 먼저였던 것들을 나에게서 하나하나 빼앗아 가셨다.

사실 내가 4살 때 아빠를 떠나보냈기 때문에 아빠에 대한 어떠한 기억도 있지 않았고, 목회자 자녀라는 타이틀도 나에겐 큰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난 도무지 믿을 수 없었고 이해할 수 없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시작되어가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을 조금씩 알게 하셨고, 내 마음도 조금씩 조금씩 열려져 가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언니와 내가 성장하면서 아빠와 엄마가 기도 하셨던대로 우리가 성장하고 있음을 경험하며 기도하며 기도의 응답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이 나의 욕심으로 인한 선택의 결과 또한 나를 만드시는데 사용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다.

나를 만들어 가시고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자녀임을 일깨워주시고 말씀으로 변화시키시는 일을 하시는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우리 세 사람은 아빠가 돌아가신 뒤 변함없이 기도하며 다짐했던 꿈이 있다.
엄마는 음식으로 , 언니는 영의 양식으로, 나는 의복으로 아빠가 다 못하고 가신 선교를 감당하는 일이다.
난 늘 엄마, 언니,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참 다르다는 것에 대해 의구심이 있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그 의구심이 풀렸고 얼마나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 수 있는 달란트인지 지금은 정말 놀라울 따름이다.

우리 아빠는 생전 늘 기도하셨다고 한다.

"세계를 무대로 삼아 일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꿈을 펼칠 무대는 바로 세계이다.
이 세상엔 영적으로, 육적으로 굶주리고 헐벗은 자들이 너무 많다.

남부러울 것이 다 가진 사람에겐 영적인 주림이 있고,
우리는 삼시세끼를 먹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가지만 어떤 이들에겐 한 끼의 식사가 그들의 하루 삶의 목적인 사람들도 있고,
아직도 제대로 된 옷 한 벌 없이, 맨발로 다니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엔 너무 많다는 것이다.

내가 많은 우여곡절 끝에 FIT를 졸업하게 되었고 디자이너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
바로 헐벗은 자들을 입히는 일을 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세 사람을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닫도록 훈련시키시고, 그 연단과 훈련 가운데 내가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나를 통해 일하시려고 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우시며 기도하게 하셨다.

난 여전히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며, 세상 속에서 갈팡질팡한다.
그러나 지금 분명히 달라진 것은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런 나를 죄 가운데서 건지신분이 예수님이시며, 날마다 매일의 삶을 붙잡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믿음의 증거가 내 안에 새겨졌다는 것이다.

한 가지 소망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가정과 나에게 주신 그 일을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걸어가고 싶다.

내 힘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나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기쁨 되며 영광 올려드리는 나와 우리 가정이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

딸에게서 받은 사랑의 선물

정혜경 권사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선물을 받으면 즐겁다. 특별히 오랫동안 가지고 싶었던 것이나 사랑과 정성이깃든 선물이면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이 커진다.
자녀들이 성장하고 나니 특별한 때가 되면 제각기 선물을 주곤 하는데, 결혼해서 분가한 아들들 보다는 함께 있는 막내딸이 제법 사려 깊은 선물을 해주어 마음을 푸근하게 해준다.
가정의 달 5월이 되면 어머니날과 내 생일이 있어서 아이들이 분주해지고 나는 덕분에 한 달 동안 두 번 선물을 받게 되는데, 지난해 생일에 딸이 준 선물은 아마도 평생 잊지 못할 귀한 선물이 될 것 같다.

어릴 때부터 유난히 책읽기를 좋아해서 여러 가지로 힘들었던 청소년기를 그 책속에 파묻혀 비교적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다. 결혼해서 세 자녀들의 엄마가 되고 직장 생활을 계속하다 보니 오랫동안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했는데, 큰 아들이 고등학생이 되어 도서관에 자주 가야된 것을 계기로 그 도서관에서 책들을 빌려서 다시 읽기 시작했다. 주로 예전에 감명 깊게 읽었던 세계 명작 소설들을 빌려서 틈틈이 읽어보니 그 옛날의 애틋한 감정이 다시 살아나고 보다 성숙한 마음으로 주인공들의 사랑과 고뇌에 공감하게 되었으며 작가의 의도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비록 사전을 자주 찾아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읽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는 했지만...

그렇게 몇 해 동안 좋아하는 고전들을 빌려서 열심히 읽으며 즐겼는데, 꼭 다시 읽고 싶은 책 하나를 찾을 수가 없었다. 그 도서관에는 없다고 하기에 유명 서점에 가서 물어보니 그 작가 조차도 알 지 못했다. 별로 길지는 않지만 읽을 때마다 가슴이 저려오고 눈물이 감도는 너무나 아름답고도 서글픈 사랑의 이야기인데... 그래서 꼭 소장할 채 잊어버리고 지내다가 작년 봄에 우연히 딸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Internet으로 주문해 보겠다고 해서 아마도 생일 선물로 주려나보다 생각하며 기다리고 있었다.

드디어 그 날이 되어 아이들이 모두 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다 돌아간 후에 딸이 나에게 책 같은 것을 건네주었다. 예사롭게 보이지 않아서 펼쳐 보니... 바로 그 책(막스밀러의 '독일인의 사랑(Memories: A Story of German Love)'이 아닌가!
그런데 그것은 멋진 커버의 두터운 노트에 딸이 예쁜 글씨로 직접 써서 만든 책이었다. 시력이 약한 엄마 읽기 좋게 큰 글씨로 또박 또박 썼으며, 장이 바뀔 때마다 그림까지 그려 넣은 그야말로 온갖 정성과 사랑이 가득 담긴 귀한 선물이었다. 그 때의 감격을 어떻게 몇 줄의 글로 표현할 수 있을까?

딸을 끌어안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마음을 가다듬은 후에 어찌된 영문인지 물어보니, 그 책을 구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보았는데 더 이상 출판을 하지 않아서 구할 수가 없지만 엄마가 너무 읽고 싶어 하니 Internet에서 그 책을 찾아 오랫동안 써서 직접 만들었다는 것이다.
둘째 아들을 나은 뒤 6년 뒤에 늦둥이로 태어나서 이 아이가 언제 클까 하고 한숨 쉬던 때가 엊그제 같고,
아직도 애기 같고 철이 없어 보이는 막내딸이 어떻게 그런 기특한 생각을 했을까?

요즘에도 가끔 그 책을 들여다보면 그 서글픈 내용 때문만이 아니고 딸의 사랑과 정성이 배어 있음에 눈물이 핑 돈다. 오래전부터 가족들이나 친구들 생일이 되면 케이크나 라자를 만들어주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더욱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딸이 되기를 바라

담임목사 추천 도서

김경구 권사

'래디컬 투게더: 래디컬 제자에서 래디컬 공동체로 도약하라'

저자/역자: David Platt/최종훈
출 판 사: 두란노
출 판 일: 2012
부가정보: 232 페이지, 22 cm.
분　야: 교회 성장
원 서 명: Radical Together: Unleashing the People of God for the Purpose of God

2015년 여름을 맞이하여 김성국 담임목사님께서 권장 성도들에게 추천하시는 책은 교회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데이비드 플렛 목사님의 "래디컬 투게더"이다.
성경을 통한 본질적 신앙 회복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던 "래디컬"의 후속 작이다. 이 책은 그리스도의 혁명적인 주장과 명령을 신앙 공동체에 적용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보여 주고 있다. 성경의 진리를 과연 현실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끊임없이 도전하고 살아오며 입증해 온 저자의 신앙적 소산으로, 공동체가 어떻게 연합해야 교회가 본질적인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지 이야기한다. 성도들 한사람 한 사람을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이끄는데 필요한 여섯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교회에서 하는 "좋은" 일들이 바른 신앙을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적이 될 수 있다. – 지금까지 개발해서 활용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실시중인 혁신방한, 다채로운 활동들을 재검토하여, 주님이 주신 시간과 에너지, 재물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낼 더 나은 길은 없는지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생산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한다.
행위의 올무에서 인류를 구한 바로 그 복음이 또한 그리스도인을 일하게 한다. – 복음은 인간을 행위에서 구원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하신다. 오직 믿음을 통해 은혜를 입을 때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설 수 있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욕심에 끊임없이 일만 하다가 지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복음을 내세우면서도 삶으로 드러내는 데는 인색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아야한다.

인간이 아니라 말씀이 일한다. – 래디컬 공동체의 기초는 "말씀"이다. 경험이 아니라 말씀의 원리로 사역해야한다. 성경에 기록된 거룩한 가르침에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를 낳아 키우며 동기를 부여해 움직이게 하고, 무장시키고 힘을 주며 방향을 제시하고 앞서 이끌어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능력이다.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하게 마음을 모아 기도하면서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어떤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지 묻고 거기에 목숨을 걸면 그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일깨워서 철저한 순종과 헌신의 길로 안내할 것이다.

교회를 바로세우는 사역의 성패는 어리석고 실수가 많은 인간을 두루 활용하는 것에 달려있다. – 올바른 교회를 세우는 과업의 성패는 부족한 성도들을 얼마나 많이 끌어들여 움직이게 하느냐에 달렸다. 누군가를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훈련해서 제자 낳는 제자로 성장시켜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종말을 갈망하며 살아야 한다. – 이웃만이 아니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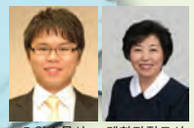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중심적인 하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다. – 하나님 영광이 아니면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

"레디컬"을 통해 자신의 신앙과 삶을 고민했다면 "레디컬 투게더"를 통해서는 교회와 공동체의 회복을 고민하게 된다. 제 아무리 급진적인 신앙을 가졌다 하더라도 혼자 움직이는 한, 그 영향력은 미미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자신을 내맡긴 지체들이 서로 연합하여 주님 뜻을 성취하는데 헌신한 교회를 이룬다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 책은 교회의 신앙 메뉴엘이다.

110기 새가족 수료예배 및 축복이 흐르는 찬양예배

2015 단기 선교지 및 명단

Harl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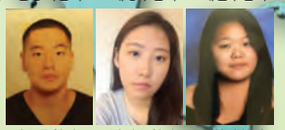
오인수목사 계화자전도사

Philadelphia

조성윤목사 배형민전도사 박정봉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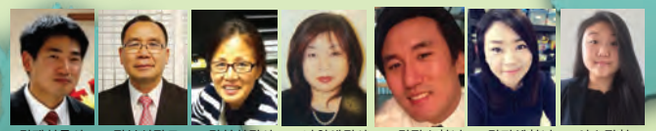
Honduras

고부영전도사 함용식집사 채영주집사 채현주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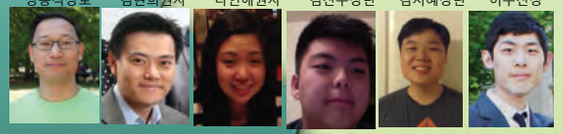


이승근청년 박지슬청년 최한나학생

Nicaragua



김재형목사 장봉석장로 김현희권사 나인애권사 김진수청년 김지혜청년 이수진청



손충현집사 신성재집사 김규리청년 황찬주학생 임제임스학생 한스티븐학생

Africa,Ind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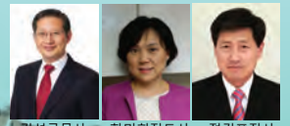
김도현목사 정길표집사

China

김성국목사 황혜옥전도사 천위지전도사 정길표집사 차상남집사 차동미권사

쉬핑해청년 하남준학생 이신은목사 정성호장로 정용숙권사

Kazakhst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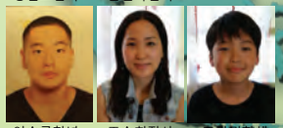
김성국목사 함미희전도사 정길표집사

황선영집사 이정훈집사 설정애권사

Cambodia

김성국목사 이양미전도사

정길표집사 문인숙집사



이승근청년 조승희집사 조강민학생

퀸즈장로교회 해외 선교 위원회

이번 초등부 여름 캠프는 One Faith, One Body, One Vision 이라는 제목으로 전교인 수련회와 다른 장소에서 별도로 진행되었습니다. 디렉터를 맡으신 준혁 선생님이 기도로 제목을 정하시고, 작은 소제목들을 가지고 은혜로움 속에 잘 마칠 수 있도록 매주 모두 모여서 기도를 하고 , 금식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특별히 갑자기 최고 학년이 되는 우리 5학년 학생들이 이번 캠프에서 어린 동생들에게 모범적인 리더들이 되도록 기도하고, 그동안 그룹 그룹으로 나뉘어져 다른 그룹끼리 어우러지지 못했던 초등부를 깨고 모든 학년, 학생들이 그룹이 아닌 하나의 초등부로 어우러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거기에 맞춰 프로그램도 준비했습니다. 우리 초등부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한 믿음으로 한 몸같이 한 비전을 가지고 이번 캠프에서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2학년 3학년이 동시에 유년부에서 초등부로 올라온 첫 날! 처음 아이들을 따로 보내시는 부모님들의 걱정스러움을 뒤로 하고 우리 어린 초등부 학생들 각자 짐들을 챙겨 캠프장으로 출발했습니다.

세시간정도 달려서 도착한 캠프장에 내렸을 때 와~! 소리와 함께 우리 아이들 위해서 이런 넓은 장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고, 방들로 각자 짐들을 옮기고, 방들을 정리하고 ,저녁식사를 위해 줄들을 서고, 점심도 제대로 못 먹어 배가 고프고, 여러 가지로 당황스러울 텐데도 우리 아이들 불평 없이 순한 양들처럼 잘 따라와 주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아이들은 드넓은 잔디밭으로 달려 나가서 잠깐 뛰놀다 드디어 맞이한 첫 예배시간! 아주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던 찬양팀이 찬양과 율동을 시작하자 아이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작던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율동도 신나지고, 뛰며 온 몸으로 찬양을 하는데, 출발할 때 가졌던 어린 초등부 학생들에 대한 걱정은 사라지고 은혜에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들의 찬양과 율동을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찬양과 율동이 끝나고 드디어 강사님으로 오신 David Lee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들의 기도에 응답해주심을 감사했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말씀에 따라 많은 슬라이드를 준비하시고, 짧게 짧게 아이들에서 맞추어 말씀을 하시고, 아이들은 손을 들며 대답하고, 선생님인 저 또한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이 글은 쓰기 시작하고 같이 캠프에 다녀온 아들에게 전도사님 말씀 중 기억나는걸 물었더니 아브라함 같은 믿음, 몸에서 제일 더러운 발을 닦아 주라, 우리는 몸의 각 부분, 하나라도 없거나 아프면 안 되고, 다 같이 있어야 한다. 등등을 슬라이드와 함께 아직 기억하고 읽었습니다. 이 은혜로움이 오래오래 아들에게 남기를 기도합니다.

예배 시간이 끝나고 진행된 야외 활동들도 너무 풍성했습니다. 셔츠들을 염색하고, 비가 오고 날씨가 쌀쌀해도 수영을 하고, 산속에서 장애물 경기들을 하고, 캠프파이어를 하고, 소시지를 구워 먹고, 강사님과 농구를 하고, 비가 많이 와서 계획했던 야외 활동을 할 수 없어도 아이들은 방에서도 즐겁게, 예배실 안에서 지하에서 게임을 하며 즐겁게 보냈습니다. 비를 맞아도 즐겁고, 갑자기 저녁이 늦어져도 불평 없이 선생님들과 함께 하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룹으로 각 팀명을 정하고, 포스터를 만들고, 팀 구호를 스스로들 만드는 것을 보고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매 식사시간 전 외워야 하는 말씀 암송도 먼저 끝낸 큰 학생들이 어린 동생들 옆에서 도와서 다 같이 끝내고, 잔디밭에서 놀 때도 어린 친구들부터 큰 친구들까지 다 어울리는 것을 보니 참 기특했고 이번 캠프 제목대로 하나의 몸을 이루게 응답해 주심을 감사했습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한 사람도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끝까지 지켜주심에 감사 기도를 드렸 습니다. 다음 겨울 캠프에는 이번 여름 캠프에 같이 가지 못했던 친구들까지 다 같이 가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캠프 출발 며칠 전에 캠프에 참가할 수 있도록 남편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번 초등부 여름 캠프가 은혜 충만함 속에 잘 끝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해주신 디렉터 준혁 선생님, 찬양팀 선생님들, 기도로 함께 해주신 전도사님,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합니다. 초등부 여름 캠프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One Faith, One Body, One Vision 의 은혜가 온 교회와 초등부에서도 계속되기를 기도합니다.

초등부 수련회를 다녀와서

박혜진 교사

여름수련회 중국어 예배부 소감

中文堂退修会感想

천위지 전도사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 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 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시편84:1-7)

이 말씀은 하나님께 경배 드리러 성전을 향할 때 부르는 찬양이며 또한 성전 안에 거하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며 또한 주 안에서 형제자매들과 교제하며 서로를

“万军之耶和华啊！你的居所何等可爱！我羡慕渴想耶和华的院宇；我的心肠，我的肉体向永生神呼吁。万军之耶和华我的王，我的神啊！在你祭坛那里，麻雀为自己找着房屋，燕子为自己找着苞雏之窝。如此住在你殿中的便为有福！他们仍要赞美你。靠你有力量、心中想往锡安大道的，这人便为有福！他们经过流泪谷，叫这谷变为泉源之地；并有秋雨之福盖满了全谷。他们行走，力上加力，各人到锡安朝见神。”诗篇84:1-7。

这是一篇朝圣、进圣殿敬拜神时所唱的诗，也是我们去到营会里的心情。我们渴慕在营会里更亲近神、更认识神，也与弟兄姐妹有更美好的团契相交，更深的彼此认识。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을 통해서 주신 말씀으로 여러 형제 자매들로 하여금 그 분의 마음을 더 알게 하시고 또 당신의 은혜와 사랑과 거룩과 희생 등을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함께 섬김과 셀모임, 그룹게임, 식사시간, 자유시간의 교제 등을 통해서 형제자매들이 서로 알아가면서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게 하였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역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시편133:1) 이번 수련회는 참으로 영과 육체가 쉼을 얻어 하나님과 다른 지체들, 그리고 자연과 더 가까워지는 은혜로운 시간 이었습니다.

특별히 감사드릴 것은 두 번째 저녁에는 모든 지체가 함께하여 여러 가지 공연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매 순서 순서가 다채롭고 흥미로워 모든 성도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했으며 우리 중국어 예배부도 그 중에 한 순서를 맡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했던 우리는 언어, 나라, 국경과 상관없이 모두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함이었고

感谢赞美主！神藉着祂仆人所传讲的信息，使众弟兄姐妹更明白神的心，更认识神的恩典、恩惠、慈爱、圣洁和牺牲/奉献；也藉着配搭事奉、小组分享、小组游戏、饭桌与自由时间里的交通，使弟兄姐妹之间的认识更深，关系更拉近了。“看哪！弟兄（姐妹）和睦同居是何等的善，何等的美！”诗篇133:1。感谢主，退修会真是我们舒展身心灵的好时机，使我们与神、与人、与大自然都有更美好和谐的关系。

特别感谢主，在第二个晚上，各部肢体都聚在一起有不同的表演，每部的表演都非常的精彩，给众弟兄姐妹带来很多的欢乐与赞美。中文堂的弟兄姐妹也有机会在其中为主献上一首歌。当时，无论是讲韩文的、英文的和中文的，在主里都成为了一家人，都为了主，也因着主，我们聚在了一起。

또 주님으로 인함이였습니다. 제 맘속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화해하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주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에베소서2:14-16)

我想这就是神的心，这就是天父的心，使人因着基督与神和好，也因着基督，众人在主里成为了一体。"因祂使我们和睦，将两下合而为一，拆毁了中间隔断的墙；而且以自己的身体废掉冤仇，就是那记在律法上的规条，为要将两下借着自己造成一个新人，如此便成就了和睦。既在十字架上灭了冤仇，便借这十字架使两下归为一体，与神和好了."以弗所书2:14-16。

주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2015년 전교회 첫 중국어 예배부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좋은 장소와 환경과 또한 좋은 말씀을 함께 받을 좋은 지체들을 예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수련회를 함께 준비한 한국어부 여러 동역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수련회를 위한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에 상이 있을 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받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2015年我们教会的首届中文堂退修会圆满结束了。耶和华的祝福满满！感谢主，为我们预备这么好的营地、环境、信息与肢体。特别感谢韩文部的同工与弟兄姐妹们劳苦的预备，使我们能够享受这么美好的营会时光。求主记念并回报他们辛苦的摆上。
在营会的信息里，有两句话，我也愿与众弟兄姐妹共勉

1. If you walk with God in your sun-shine, then God will walk with you in your shadow.

1. If you walk with God in your sunshine, then God will walk with you in your shadow.

우리가 기쁠 때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면, 어려울 땐 그 분이 우리와 기꺼이 함께 하십니다.

2. If I am not your Lord of all, then I am not your Lord at all.
내가 너희 모든 것의 주인이 아니라면 나는 너의 어떠한 것의 주인도 아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교회에 축복에 축복을 더하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如果在你顺境的日子里，你与神同行，那神也必在你逆境的日子里，与你同行。

2. If I'm not your Lord of all, then I'm not your Lord at all.
如果我不是你全部的主，那我就完全不是你的主。

愿全能全知全爱的上帝大大的赐福于我们教会，也藉着我们施恩典于万民。哈利路亚！荣耀归于主！

한가족 (一家人)

ShouFen Chi

하나님께서 저희 아이를 퀸즈장로교회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의 종 첸전도사님으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셔서 저희 아이가 견고하게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해 주셔서 더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헌신이 가득한 믿음의 가정으로 인도해 주셔서 저 또한 오랜 믿음생활에서 다시 활력과 열정을 찾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진리의 말씀을 통해 영의 만족감으로 충만하게 되어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쁩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열린 중국어 예배부 여름수련회에도 참여하게 되어서 더 감사합니다. 3일 밖에 안 되는 일정이었지만 아마 저의 후반생에 적용할 수 있을 만큼 충만한 말씀을 받은 듯합니다. 아이한테 한 번 더 살아계신 진리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이며 그 분은, 그 분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이번 수련회에 저에게 제일 큰 감동을 주었던 것은 둘째 날 저녁 예배 때 우리가 찬양하기 전에 김성국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기도를 드리셨는지 내용은 모르지만 겸손하게 성령충만한 모습으로 기도하시는 것을 보며 저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의 놀라우신 하나님은 김성국 목사님의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통로가 되어 하나님께 저의 영과 마음으로 기도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 시간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언어와 종족과 전혀 상관없이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感谢主耶稣，是您的带领让孩子来到了皇后区韩中长老教会。更感谢主，藉着您的仆人--陈传道的口把您的话语那么清楚明白的、干净利落的传讲出来，把孩子的心牢牢的留在了这里，在这个充满您无私的大爱的大家庭里，让我这信主多年的老人家又找回了年轻的感觉，尤其是在圣经的真道上得到了饱足。

真的感谢主，我有幸参加了今年第一届的中文堂退修会。虽然只有三天，但我听到了够我后半生用的话语，让孩子又一次真正懂得了这位又真又活的神，我们在天上的阿爸父的心。祂是赐恩典的神，又是慈爱、圣洁的神，祂是。。。祂是。。。祂是我们的一切。

这次退修会最触动我心的是第二天的晚上，我们集体献诗前，我们最尊敬的金星局牧师跪在台上，向我们的主祷告时，虽然在字句上我听不懂，但那圣灵的充满，虔诚俯伏在主脚前的真诚，感动得我眼泪止不住地流。我们的神是多么的奇妙，随着金牧师的祷告，把我的心带了进来，就成为是我在和我的父神在述说在祈求。我深知这是圣灵在做工，因为在神的大家庭里，我们不分种族和语言，因为“我们是一家人”。

感谢主！把荣耀归给至高的神！

"온 세상을 향한 사랑과 화평의 수고"

수고와 슬픔 속에 살아가는 고달픈 나그네 인생길을 정처 없이 걸어가며 시시 때때로 다가오는 유혹의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근심과 두려움에 짓눌린 채 쉼 없이 반복되는
힘든 일과와 무더위에 지치고 피곤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참된 안식을 누리고 새 힘을 얻도록 아버지께서 친히 준비하신 풍성한 천국 잔치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염려와 문제들을 다 내려놓고 깊은 산 속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즐긴 2015년 전교인 여름 수련회가 6월 29일(월)부터 7월1일(수)까지 시원하고 아늑한 Hudson Valley Resort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은혜와 진리의 사자 한철호 목사님(현 선교 한국 파트너스 대표, 선교 한국 상임 총무)을 강사로 모시고 "하나님의 마음 – 은혜. 거룩. 드림"이라는 주제 아래 샘솟는 사랑의 기쁨과 은혜의 단비 속에 펼쳐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 안에서 부끄러운 옛사람의 정욕과 굴레를 벗어 버리고 새로운 빛의 자녀로 거듭 나고자 몸부림치며, 우리 안에 가득한 허물과 죄를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의 거룩을 닮아가고자 서원하고 다짐한 복된 시간들이였습니다. 곳곳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신 형제, 자매들의 사랑의 수고로 더욱 편안하고 즐거웠으며, 시시 때때로 넘치도록 부어 주시는 생명수와 만나를 배불리 먹고 그 큰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된 2박 3일의 정금같이 귀한 휴가를 꿈같이 보내고 아쉬운 발길을 산 아래로 향하며 주님께서 들려주신 사랑의 속삭임을 되새겨 봅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해도 주님은 지금의 내 모습 그대로 드리기를 원하시며 그 연약함을 통하여 주님이 기적을 이루신다는 것을, 오랫동안 아버지 집에 함께 살았어도 집 밖에서 서성거리던 맏아들(탕자의 형)의 불신과 교만을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와서 신뢰를 회복하고 감사하며 더 나아가 우리도 모든 사람을 품어주고 용서와 사랑을 베푸는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생을 바쳐 이루어 놓은 성취나 업적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삶 자체가 가치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교만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아버지의 완전한 사랑에 사로잡혀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야 함을 알게 되었고, 그동안 사랑하고 최고의 가치를 두었던 겉옷을 던져 버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께 외치며 달려가는 것이 복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유혹의 자리에서 속히 떠나서 말씀에 사로잡힌 가치 있는 삶을 살며 현재의 익숙하고 편안한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를 필요로 하는 새로운 곳과 낯선 자리에 가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거룩을 회복하며 순종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그 엄청난 사랑과 은혜의 빚을 갚아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며 그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고, 전에 원수 되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므로 이제는 모든 불신자, 이교도들과 자연만물 까지도 하나님과 화목해지도록 사랑의 수고를 쉬지 말아야 하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워지기 위해 힘쓰고 애쓰며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복음의 소망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이 세상에 이루어 가야 합니다.

비록 그 길이 좁고 험난할지라도 세상 끝 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주님 손을 꼭 잡고 견고한 믿음과 소망의 인내와 희생의 사랑을 가지고 온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대해 봅니다.

Admiral's Gold
SECRET HIDE OUT
PLUNDER CREW

전교인 수련회

2015
하나님의 마음
은혜·거룩·드림

하나님의 마음

은혜. 거룩. 드림.

지후의 첫 유년부 수련회를 다녀와서

조지영 집사

저의 첫째 아들 지후는 수련회에 가는 것을 엄청 좋아합니다. 지후는 수련회를 킹덤이라고 부르는데,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오면 킹덤에 또 가고 싶다며 언제 갈수 있냐며 다음해 수련회까지 일 년을 다시 기다립니다.
그런 지후가 올해는 유년부가 되었습니다.
요근래에 들어서는 동생인 윤서에게 자기는 유년부라며 너는 아직 어려서 유년부에 올수 없다고 형처럼 커야지만 올수 있다고 자랑 아닌 자랑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출발하는 버스 안에서 유년부 전도사님을 만났을 땐 너무 반가워서 꼬옥 안기면서 "전도사니임~ 저 이제 유년부 잖아요~~" 하며 좋아하는 모습을 보며 버스 안에 있던 분들과 함께 웃었습니다.

수련회장에 도착한날 어른들의 스케줄에 맞춰 시작한 유년부 프로그램은 지후에겐 마치 천국과 같았나 봅니다. 저를 등지고 유년부 예배실로 갈 땐 기대로 가득차 있었고 돌아와서는 기쁨으로 가득차 있었습니다.
지후의 얼굴만 봐도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의 기도와 수고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사실 부모인 저 또한 너무 좋았습니다. 어른들 예배시간은 당연하고 예배 시작 전 경배와 찬양 연습에도 지장이 없을 정도로 유년부 스케줄은 빈틈이 없었기 때문에 아빠 없이 아이들과 간 수련회지만 마음 편히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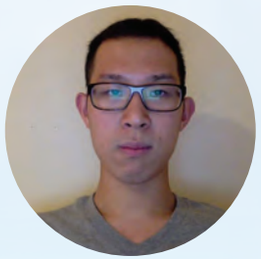
예배드리는 시간, 찬양 드리는 시간뿐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 체조하는 시간, 함께 모여 식사하는 시간, 바이블 스터디 시간, 남자 선생님들이 온힘을 다해 놀아주었던 수영시간 등등 말로 다 할 수 없는 많은 프로그램 순서 하나하나마다에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의 불타는 열정과 기도와 정성이 담겨 있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약간은 지친 듯 방에 앉아 있다가도 유년부에 갈 시간이라고 하면 좋아서 얼른 일어나 나가는 지후를 보며 또 수련회를 내려온 지금도 수련회 때 외웠었던 성경말씀들을 외우며 즐거워하는 지후의 모습을 보면 마음 한구석이 뜨거워집니다.

요즘은 학교에 보내는 것조차 망설여질 정도로 세상의 가르침이 악한 이때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의 아이들이 세상에 나아가서도 세상의 것을 쫓지 않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진리로 바로 서고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말씀 안에서 훈련 받을 수 있는 좋은 교회와 유년부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온 교회가 함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의 아이들을 위하여 그 아이들을 양육하는 교육부서를 위하여 더욱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유년부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안에서 지후가 더 깊이 하나님을 느끼며 배우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늘 말씀과 기도로 가르치시고 사랑을 아끼지 않으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후는 오늘도 물어봅니다... 킹덤엔 언제 또 갈수 있냐고...

Early Elementary Camp



박요한 교사

One of the most valuable lessons I have learned during Pastor Peter's Spiritual Leadership Training is "The Master's Master Principle": serve one another in love and be a loving servant to all. According to Galatians 5:13, "You, my brothers and sisters, were called to be free. But do not use your freedom to indulge the flesh; rather, serve one another humbly in love." I was able to witness true servanthood and tremendous growth in the Kingdom of God at this year's 유년부 summer retreat.

When I initially heard that only 25 out of the 80 유년부 students would be attending the retreat, and because human logic tells us that more is better, I was very disappointed. Why weren't there more people signed up for the retreat? Was it necessary for so many teachers to go? Were we going to have a good time? These were some of the many doubts running through my mind, but my lack of faith in God was dispelled after meditating on His words. Matthew 18:20 tells us, "For where two or three gather in my name, there am I with them." After coming across this particular passage, I finally realized that having more students present at the retreat didn't necessarily mean that we would receive more of God's blessings, or that having less people would mean that our Father would not empower us with the Holy Spirit. I have yet again failed to understand how important it is to be optimistic and wholeheartedly trust in God. We must believe that our God is a God who will always listen to our hearts and a God who will always provide, and I can confidently say that God provided faithfully throughout this retreat.

One of the retreat's most blessed moments was praise time during the worship service. Although prayer is a significant component of our walk with God, we seldom see or experience the importance and power of praise. Two songs that had the greatest impact were "I Have Hidden Your Word In My Heart" and "Faith." "I Have Hidden Your Word In My Heart" is based off of Psalms 119:11, and is personally my favorite 유년부 worship song; it is so simple, yet such a powerful reminder of how we should live our day-to-day lives. The song goes: "I have hidden Your word in my heart/ I have hidden Your word in my heart/ That I might not sin against you, Lord I have hidden Your word in my heart." The most compelling lyrics in "Faith" are: "Faith to see beyond what I can see/ Faith to know that you will do great things/ I will trust you, Lord/ I'll always believe." Most of the kids were unfamiliar with these two songs, which caused them to be shy, but after singing the songs a couple of times, I noticed how loud and earnest their praises were. While hearing these words come out of these children's mouths, I could see their sincerity and how they have truly hidden His word in their hearts. It was also evident that God was doing great things and is continuing to do great things, even though we might not be aware of it.

The messages on the first two days of the retreat were given by 배인구 전도사님 while 팽정은 전도사님 preached on the final day. The main concepts that their sermons centered around were "God is the Light" and "God gave us the ultimate gift by sending his one and only son Jesus Christ to die for our sins." 배인구 전도사님 discussed the story in which Jesus teaches Nicodemus how anyone can see the kingdom of God only if he is born again. It was a blessing to see God use His servant 배인구 전도사님 to deliver His words to His children in an engaging, entertaining manner.

수련회

I believe that it was God's plan to use this retreat as a way for all the teachers and students to grow together in their walk with Christ. Every minute spent at the retreat - worship time, fellowship time together in the swimming pool, and even Arts and Crafts time - taught me something new. One of the Arts and Crafts activities we did was attaching key-shaped stickers onto a heart. Although it may seem like a trivial activity, it'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deeper meaning that was embedded onto this heart: Jesus is the key to salvation, and as God's people, we must believe this truth with all of our hearts.

The students were divided into teams and came up with their own group names: "God is Light," "Thunder," "Jesus' Children," and "Jesus is my Superhero" (another praise song we sang during the retreat). On the last day of the retreat, prizes were awarded to each team. One of the most blessing moments during the award ceremony was when one child put on the sunglasses he won, gave the peace sign, and said, "Jesus is my Superhero." Children learn best at a young age, and it's crucial that we teachers should act as shepherds and guide their spiritual growth, just as Jesus is our shepherd and keeps us from going astray. Let us hide the seeds of the gospel deep inside these young hearts and pray that they grow, yielding a great harvest of young Christ-centered men and women who are true servants and worshippers of God.

중등부 수련회를 다녀와서

송인태 집사

늘 그렇듯,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전도사님과 부장집사님, 그리고 캠프장으로 수고한 John Teacher 를 중심으로 수련회를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잘 다녀왔다.

이번 수련회는 아이들의 연령에 변동이 있었다. 교회학교 학년배정이 바뀌면서 두 개의 학년이 동시에 졸업과 입학을 함으로써 7학년 아이들과 5, 6학년의 새로운 아이들이 캠프에 함께 하였다.

수련회를 통해 한 가지 발견한 것은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중등부의 가장 어린 학년이였던 아이들이 7학년 리더가 되어서 각자의 팀을 이끄는 것을 보니 참 대견하였고 그들이 결코 어린 아이가 아님을 알게 되었다.

기도시간과 큐티시간 그리고 그 외의 모든 팀 활동시간들을 너무나도 잘 이끌어 주었다.

또한, 모든 모임 시간에 대부분의 아이들이 시간을 잘 맞추어 주어서 예전처럼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찾으러 방을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해주었다. 선생님들의 수고를 덜어준 아이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고 그런 아이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수련회 프로그램 중 하나로 특별한 시간이 있었는데, 얼마 전 통과된 "동성애 결혼 합법"에 대하여 아이들에게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른 것인지 알려줄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 전도사님께서 세상이 동성애를 법으로 인정하며 점점 추악해져 가는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 주어야 한다며 크리스천 영화를 준비하셨다. 요즘은 "God' not dead"(안보신분은 보시면 좋을 듯)같은 좋은 기독교 영화들이 많이 나오는데, 전도사님이 가져오신 영화는 동성애에 관한 기독교 영화였다. 아이들과 영화를 보고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이들이 잘 이해하고 받아들였기를 바라며 영화와 토론시간을 통해 아이들이 세상법과 하나님의 법을 이해하고 잘 분별하여 지혜롭게 선택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한다.

잘 짜인 프로그램과 강사 목사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이 은혜 받는 모습을 보았다. 때때로 이런 저런 일들로 아이들이 다투고 투덜거리는 모습이 잠시 보일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들은 다시 친하게 어울리고 잘 따르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마지막 날 기도회 시간에 아이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서로에게 준 상처를 눈물로 사과하며 용서하는 모습을 보며 주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가는 중등부를 볼 수 있었다.

청소년기를 보내는 민감한 시기에 미안하다고 먼저 말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니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은혜가운데 잘 자라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아이들이 수련회를 통해 받은 말씀과 은혜를 잊지 않고 늘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중등부 파이팅!

박흥배 집사 가정& 심인보 집사 가정

지난 7월에 있은 전교인 여름 수련회의 강사목사님께서 본교회에 가정예배드리기를 3년여간 권면하여 이제는 온 가정에 가정예배가 정착이 되었다는 짧은 한마디에 담임목사님께서는 2015년 교회 표어인 "기본에 충실한 지혜로운 교회"를 위해서는 가정에서의 예배가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시며 한해의 반환점을 도는 시기에 우리 교우들의 모든 가정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담임목사님께서는 일주일에 한번 이상 예배드리기를 통해 각 가정에 예배가 자리잡고 가정예배를 통해 가장의 제사장적 의무와 권위가 살아나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며 예배를 목숨보다 중히 여긴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의 가정을 이루어 가기를 소원하며 권면하셨습니다.
목사님의 권면에 즉각 순종하신 심인보집사님 가정과 어린 자녀들과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는 박흥배집사님 가정을 초대하여 가정예배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편집부: 가정예배를 시작하게 된 계기나 처음 예배 드린 날을 기억하시는지요?

박흥배 집사: 저희 가정은 2012년 7월 영아부에서 권면하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구요, 그 후로 유아부와 유치부를 거쳐오면서 지속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심인보 집사: 저희는 올 여름7월 5일부터 시작했구요, 담임 목사님의 권면으로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편: 박집사님 가정의 자녀들은 아직 어린데요, 보통 어른들과 똑같이 예배를 드리면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하지 않나요?

박수연 집사: 네, 맞아요, 어른들이 하는 예배 모습 그대로 하면 아이들이 금방 지루해하지요. 그래서 저희는 교육부서의 주보를 사용하여 종이 인형이나 어린이 성경책으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편: 반대로 심인보 집사님 가정의 자녀분들은 모두 장성한 청년들인데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계시나요?

심화숙 집사: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아이들은 모두 다 커서 저희와 똑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편: 그렇다면 가정예배를 매일 저녁 드리시는지, 아니면 주중에 몇 번 날을 정해 놓고 드리시는지 궁금한데요?

박수연 집사: 저희는 일주일에 두세 번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날은 요절 읽기와 주일날 배운 공과공부를 복습하면서 우리도 그렇고 아이들도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심인보 집사: 저희는 주일 저녁을 가정예배 드리는 날로 정해서 일주일에 한 번 드리고 있습니다.

편: 심집사님께서 처음 이야기 하실 때, 다시 시작 했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이유로 가정예배를 못드리셨나요?

심인보 집사: 아이들이 어릴 적에는 함께 가정예배를 드렸었는데 미국에 이민오면서 중단됐습니다. 모두 이사다시피, 이민생활하는 것이 힘들어서 마음의 여유가 없었거든요.

가정예배

편: 그러면, 자녀들이 어릴 때 드렸던 예배와 지금 예배와 다른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심화숙 권사: 아이들이 어릴 때는 아빠의 인도로 예배 드렸기 때문에 여러면에서 일방적이었는데, 지금은 예배 시간에 말씀을 가지고 서로 대화도 하고 각자의 생각들을 나눌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다른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편: 매일 아니면 요일을 정해놓고 지키는 것은 부담스럽거나 어렵지 않나요? 퇴근시 간이나 갑자기 일이 생기거나 자녀들의 컨디션이 안 좋을 때도 있을텐데요?

박흥배 집사: 네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부부 모두 일을 하기 때문에 퇴근 후에 집에 오면 많이 피곤하지요.

박수연 집사: 그것도 그렇고 아이들이 어려서 오래 앉아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재미있게 가정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부담이기도 해요.

심인보 집사: 저희 가족 같은 경우는 주일 저녁에는 온 가족이 모일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습니다.

편: 박집사님 가정은 큰 딸과는 말로 의사소통이 조금은 가능할 것 같은데, 작은 딸과는 아직 쉽지 않을거 같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시나요?

박수연 집사: 네 그래서 아직 말씀드린대로, 둘째가 아직 한 살이라서 예배 드릴 때 종이를 꼬기고 연필로 낙서를 하지만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 모양 그 모습으로 이 아이는 예배를 드리는구나. 어리지만 예배에 같기도 함께 하고 있는 마음을 느낄수 있어서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말씀 읽기도 하고 있습니다. 찬양도 하구요.

편: 승혜는 엄마랑 아빠랑 예배 드릴 때 뭐가 제일 좋아요?

박승혜: 찬양이 좋아요. 내게 강 같은 평화

편: 담임 목사님께서 주보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기본 순서를 알려주셨는데요, 각 가정마다 조금씩은 다른 모습으로 예배가 드려지게 될텐데 가정 예배 드리실 때 예배순서를 소개해 주세요.

심화숙 권사: 처음 인도자가 기도로 시작하고 사도신경, 찬송, 다음에 가족 중 한 명씩 돌아가며 기도하고 말씀은 가정예배 책에 나와 있는 성경본문을 읽고 함께 나누는 순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와 담임 목사님, 단기 선교팀, 가족 (건강, 직장, 결혼 등)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순입니다.

편: 박집사님 가정은 가정예배를 드리실 때 어떤 기도를 하시는지요?

박수연 집사: 저희는 우리 가정 안에서 예배가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드릴 수 있게 기도하구요, 아이들이 믿음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게도 기도합니다.

편: 가정예배를 드리게 된 후로 어떤 점을 느끼고, 가장 좋은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박흥배 집사: 생활들이 모두 바쁘잖아요. 그런 생활 중에 서로 한 곳에 모인다는 것은 더더욱 어렵구요. 특히 교회에 와서도 가족 모두가 서로 다른 부서로 가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정말 한 곳에 모인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가정예배를 통해서 가족이 모두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가장 감사하면서 좋습니다.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게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과 담임 목사님 권도사님,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 전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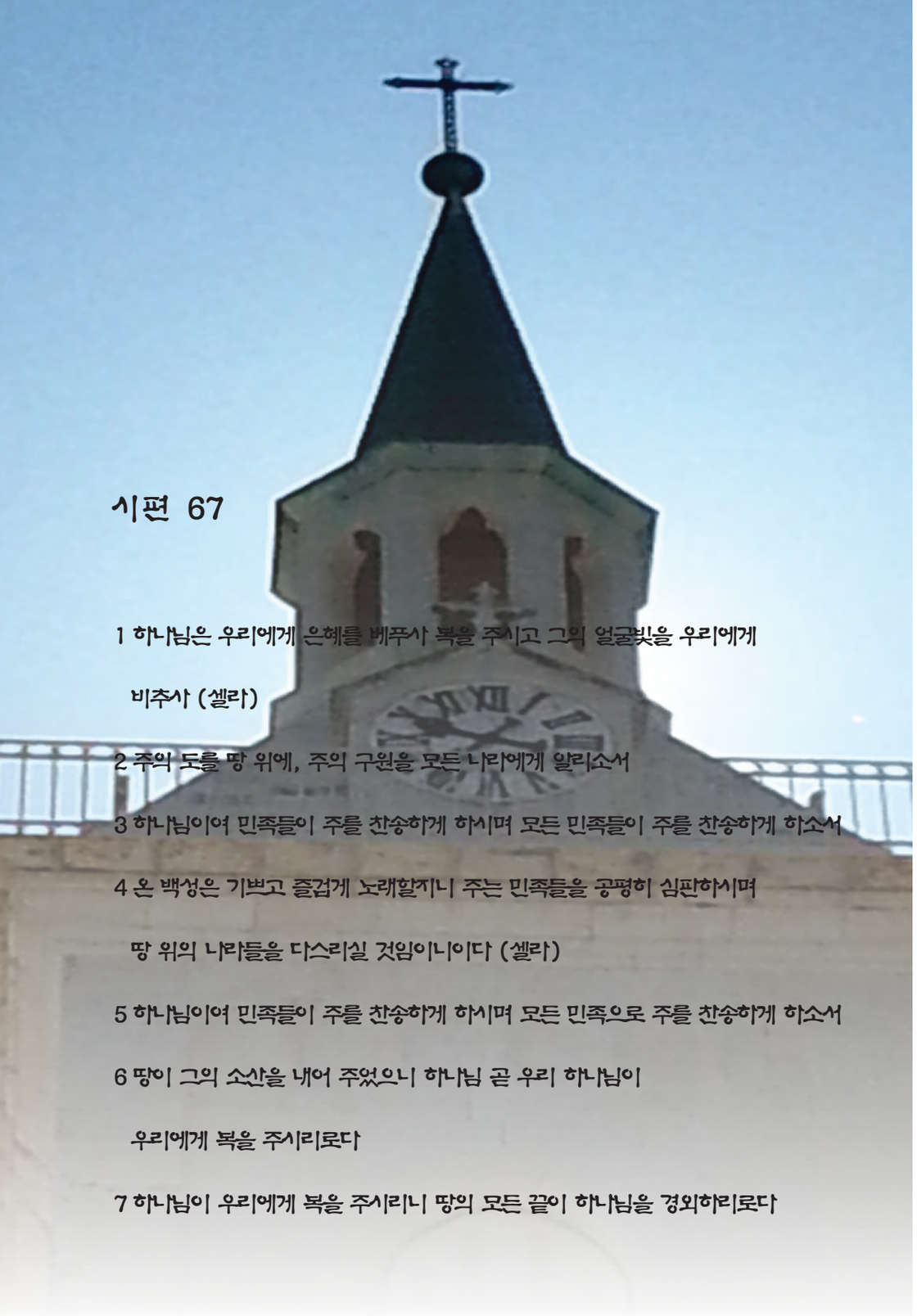
심인보 집사: 하나님께 예배를 한 번 더 드릴 수 있다는 점하고 말씀을 더 묵상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심화숙 권사: 저는 우리 가정 안에서 찬송이 울려 퍼지는 것이 가장 기쁩니다.

심성희 청년: 가족 모두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심규한 청년: 다같이 말씀을 가지고 교제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두 가정이 참 많이 다른 모습인데 지혜롭게 가정예배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가정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도 나눌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집사님의 가정을 비롯하여 온 교회가 가정에서 예배 가 회복되어 예배를 통한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67

1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2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3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4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셀라)

5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6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7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명준모 위장내과에서는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 시설을 모두 완비!
한곳에서 두가지 검사를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빛이 되겠습니다.

기분좋은 만남, 정성을 다하는 명준모 위장간내과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진료를 약속드립니다.

진료과목

- 무통 위 내시경
- 무통 대장 내시경
- 조기위암, 대장암, 식도암 진단
- B형, C형 및 각종 간염 진단/치료,
- 알코올성 간염, 간 조직검사, 지방간
- 각종 소화기 질환
- 최신 특수컴퓨터 비디오 내시경 시설

메디케어 및 각종보험 취급

- 120대 주차장 완비
- Q28, Q13 버스정류장 앞

154-08 Northern Blvd. Suite 2K Flushing, NY 11354
TEL 718.445.0200 FAX 718.445.0226